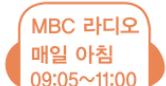


여성시 IDA

양희은·김일중입니다

9월
2025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영천지점 거래고객
(주)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거래고객
(주)파이온텍 김태곤 대표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낮은누군가의 연락 두렵다면 0일개정끼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감정적 테러 보이스피싱

연락을 멈추고
주변에 상의할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



i-ONE 가드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전에 예방하세요!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확인해보세요!

contents 2025년 9월호



-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전 진행자 서경석 님
- 12 이달의 편지**
'식물에게 배운 인간관계'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파이온텍 김태곤 대표
- 80 코너 속 편지**
'아내의 자유시간' 외
-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날아가는 시간
-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가족여행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9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증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릉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진짜 학교, 여성시대!

전 진행자 서경석 님

글 | 박금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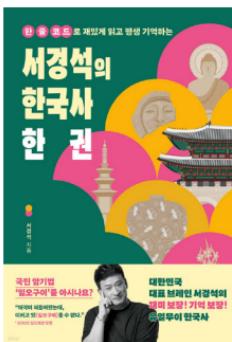
- 정 많고 눈물 많아서 방송하다가 여러 번 울었던 울보 경석 씨, 정말 반 가워유!
- 희은 언니, 서경석 씨 나오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 늘 공부하는 서경석 님, 대단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더니, 그 어려운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만점을 받으셨다면서요?
- 양희은, 서경석, 김일중,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 이 조합도 괜찮네요. 세 분이 같이 진행하시면 재미날 거 같아요.
- 경석 님, 여성시대 떠나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 서운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노모와 종일 같이 있기, 한국사 1타 강사 도전, 4박 5일 여행 프로그램 진행하기, 유튜브 개인방송 '그래서경석'에 집중하기 등등 하고 싶다고 하던 일을 하나하나 이루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 경석 형, 정말 반갑습니다.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 보고만 있어도 편 안한 사람!

전 진행자 서경석 씨를 초대한 8월 5일 열린 화요일 시간, 여성 시대 문자함 #8001에는 이런 문자들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 **김일중** : 서경석 씨는 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한국사에 끙 빠지셨어요? 이번에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이라는 책도 내셨네요? 밀고 나간다고, '중년의 불도저'라는 별명도 얻으셨고요.

▶ **서경석** : 하하하, 실패하더라도 가보는 성격이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역사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2006년에는 MBC-TV 느낌표에서 '위대한 유산 74434'를 진행했는데,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시청자들과 진행자들이 1억 3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일본에 반출된 선조가 내린 김시민 장군의 교지를 되찾아 진주시에 기증했습니다. 2017년에는 KBS-TV '천상의 컬렉션'에서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에 얹힌 역사 이야기를 소개했지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번 책에서는 우리 역사를 알고 싶은데 막막한 분들,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는 분들께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이러구(159) 있을(2) 때가 아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웃으며 공부할 수 있게 기억하기 좋은 ‘한 줄 코드’를 넣었어요.



양희은 : 4년 전엔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하던 날도 생각나네요. 그날 아침 9시에 발표인데 나더러 손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너무

떨린다고. 워낙 집중력이 강해서 늘 합격이죠, 뭐 근데 놀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바쁜생활 사나이인 점은 아쉬워요.

 **김일중** : 자립청년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대사 겸 자립 준비청년 명예 멘토시네요?

 **서경석** : 양희은 누님이 자립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서 옆에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어딜 가나 여성시대 가족들을 만납니다. 한결같이 반가워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니까 거의 8년을 여





성시대와 함께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가든 스튜디오'가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제가 여성시대를 사랑하나 봐요. 오늘도 당당이님들이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하고, 양희은 누님 여전히셔서 기쁘고, 김일중 후배님 기량을 잘 발휘하는 모습에 박수 보냅니다.

돌아보면 모녀가 암투병하는 사연을 읽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대성통곡했던 일이며 재미있어서 아이처럼 깔깔거린 일이며 정말 많이 웃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여성시대는 '진짜 학교'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곳이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채워준 '진짜 학교'! '진짜 학교'는 당당이님들이 만들어주셨죠. 청취자들이 들어주시고 편지 보내주시고 방

송을 함께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성시대 방송 50년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것들이 빨리도 변하는 이 시대에 한 프로그램이 5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당당이님들이 앞으로 100주년까지 쭉 이끌어 주십시오!

가족과 친구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습니다. 늘 안부를 묻게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시대와 당당이님들과 서경석 전 진행자도 그런 사람이입니다.



남자의 멋



[8500] 운전하며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호하려 팔을 딱 뻣었을 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3328] 반팔 입으면 잘 모르는데 민소매 티 입으면 어깨 랑 이두근이 좀 멋진 거 같아요. 민소매 티 입은 날은 헬스장 가는 날!

[9873] 남자의 멋은 인도를 걸을 때 안쪽으로 걸 게 하고 우산을 같이 쓸 때 본인 어깨는 젖을지언정 여성을 젖지 않게 하는 게 멋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307] 저는 바이크를 타는데 그때 진정한 남자의 멋이 나온다고 봅니다.

[8370] 저는 남자가 기계 만지고 있을 때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집안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를 고칠 때 정말 멋져 보여요.



[9807] 크로스핏 하면서 철봉운동하는데, 힘든 동작 해내고 손바닥에 굳은살 생겼을 때! 그 굳은살이 운동하다 뜯어지고 다시 생기면서 여러 번 반복할 때! 내 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 | | |
|-----------------|-----------------|
| 12 식물에게 배운 인간관계 | 40 낡은 슬리퍼 |
| 16 우리 마을 풍물패 | 44 오이지가 익어가는 계절 |
| 19 속상했지만 | 47 남편의 외출 주문 |
| 22 감자 한 봉지 | 49 된장 맛 찾기 |
| 26 닭들도 의리가 있다 | 53 한 아이를 키우는데 |
| 31 금은방에서 생긴 일 | 57 서림복지원 진료실에서 |
| 35 진심을 주고받는 방법 | |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식물에게 배운 인간관계

주상희 | 서울 광진구 능동

2년 전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부터 부쩍 외로움이 쉽게 찾아왔어요. 회사에서는 같은 말도 괜히 예민하게 들리고 집에 돌아오면 소음 하나 없는 정적에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곤 했죠. 무언가를 보듬고 싶다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어느 날 마트 한 편에 놓여있던 초록 식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투키. 가느다란 줄기들이 위로 똑바로 뻗어 있고 모서리마다 단단한 살결이 돋보이는 식물이었어요. 식물을 키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들 하잖아요. 스튜키에서 웬지 모를 든든함이 느껴져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죠. ‘장군이’라고요. 그 단단한 생김새가 마치 내 삶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장군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햇빛 좋은 자리에 두고 물도 자주 챙겨주고 면지 쌓일까 틈틈이 닦아주 기도 했어요. 작은 존재 하나에 마음을 기댄다는 게 참 묘하게 따뜻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이가 조금씩 시들기 시작했어요. 잎끌이 노랗게 마르고 줄기 끝이 측 늘어지고 예전의 곧은 기세가 사라졌죠.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 걱정하며 물도 더 자주 주고 햇볕도 더 오래 쬐어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스투키는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는다는 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물을 줬는데 그게 오히려 장군이에게는 독이 되었던 겁니다. 맙소사,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장군이의 잎끌처럼 제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보살피며 한 일이었는데 그 마음이 무지하고 과해서 결국 이 아이를 힘들게 한 셈이었던 거죠. 그게 꼭 인간관계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사람 사이에서도 종종 비슷한 실수를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면 뭐든 해주고 싶어졌어요. 챙겨주고 도와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채 주고 그게 사랑이고 진심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피하는 게 느껴지고 나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멀어졌어요.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하고 되묻게 됐었죠.

장군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식물을 다시 들이지 못했어요. 뭔

가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꽃집을 지나던 중 문득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식물이 있었어요. 잎은 장군이처럼 단단했고 웬지 끌리는 작은 식물이었어요. 그때 마침 가게 주인이 나와서 그러더군요.

“호접란이에요. 초보도 키우기 쉬워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좀 피하게 해주시고요. 애랑 적당히 거리를 좀 두셔야 해요.”

그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적당한 거리>

저에게 필요한 연습 같았어요.

호접란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이름을 ‘담이’라고 불였습니다. 담백하게 담담하게. 이 아이와는 그렇게 지내고 싶었어요. 장군이 때랑은 달라야 한다고 이번엔 저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하면서요.

담이와의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 햇빛은 부드러운 방향으로만.

그렇게 조용히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담이가 꽃을 피웠어요. 보랏빛이 잎 사이에 천천히 번지더니 마침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향기가 깊고 풍성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 같아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선 거리에서 서로가 편안해지고 숨 쉴 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누군가를 아끼는 방법만 알았지 존중하는 거리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자칫하면 상대를 짓누를 수도 있다는 걸 식물들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가끔 장군이를 생각해요. 그 애가 처음 시들어갈 때 눈치도 못 채고 더 힘들게 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 미안하고 또 그립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떤 관계는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같은 간격이 필요하겠죠?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의 빛, 필요한 만큼의 물만 주면서 꽃이 피는 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아끼고 바라봐 주려 합니다.

담이 사진 보냅니다.



Letter 02



우리 마을 풍물패

이정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풍물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2025년 마을 경제 사업으로 선택한 풍물 교육 수업은 마을 주민으로 단원이 결성되었기에 80세 넘으신 회원들이 많고 이 마을에서 유일한 50대 주민인 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잘하고 싶다는 의욕을 안고 합류했습니다.

뺑과리, 장구, 북, 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엔 다들 궁채가 뭔지 열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곤조곤 선생님이 해주시는 설명에 집중하면서 다들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파이팅도 외치며 하루하루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상쇠님의 ‘얼쭈’ 한마디에 다들 눈빛으로 장단을 이어갑니다.

상쇠님께서는 우리가 장단을 틀릴 때마다 한마디 하십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뵐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것 없다~ 파이팅~”

주먹을 힘껏 쥐고 그렇게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우리 회원들도 따라서 “파이팅~” 외치면서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연습을 많이 한 회원은 선생님만큼이나 장단을 능숙하게 하다 보니 못 따라가는 회원끼리 연습을 할 때 리더로서 문제를 해결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든든합니다.

맨 처음 1인 테스트를 할 때는 모두 쑥스러운 얼굴로 “저, 못 해요” 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다~ 열쭈!” 하시면서 회원들 한 명 한 명 한가락 한가락 알려주셔서 이제는 함께 장단이 이뤄집니다. 풍물 소리가 나날이 성숙해 갑니다.

또 노인 회장님의 똑심 있게 매일 출석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기운을 넣어주시고 수업이 끝나면 전과 막걸리 한잔을 나누며 모두를 응원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뭐든지 똑딱똑딱 해결하시는 손 큰 이장 사모님은 밥솥으로 감자도 짜주고 늘 맛 나는 간식을 해주시니 풍물 회원 간에 친분도 더욱 돈독해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총 32회로 예정된 연습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열두 번 수업했는데 매번 동영상은 찍어서 장단을 놓친 회원은 집에 가서 보고 또 보면서 더 노력합니다.

저는 장구를 맡았는데 제자리는 능숙하게 제법 치지만 이상하게 손 넘어갈 때 꼭 한가락씩 놓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장구는 입으로도 구음을 내며 연습하는데 장구 소리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늘 구음을 외치게 됩니다.

사물놀이할 때 꼭 외워야 하는 우리 가락도 있는데 신명 나게 한번 외쳐볼까요.

‘♪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어둠 속에 별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
연습을 거듭할 때마다 그래도 제법 만족할 수 있는 장단이 되어가니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물놀이 풍물 회원분들과 끝까지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고 박수치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다들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신명 나는 작은 음악회, 마을 연주회를 할 수 있길 꿈꿔봅니다.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당당하게 한마음 한가락으로 영남 사물놀이 한마당을 만들 수 있도록 여성시대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성시대 사랑합니다~ 우리 풍물 회원들 사랑합니다~ 여성시대 덕분에 저는 행복한 당당입니다.

Letter 03

속상했지만

박영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저는 경남 창원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두는 냉동고 안에 제가 가게에서 신는 슬리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말이 지나면 평소보다 가게가 많이 어지럽혀 있긴 한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CCTV를 돌렸죠. 중학교 1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한 시간 동안 좁은 가게 안에서 물건으로 장난을 치고 신발을 신은 채 냉동고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음악이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껐다가 켰다가, 냉동고 문을 열고 머리를 넣은 채 누가 오래 참나 내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하여튼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물건에 다 손을 대고 아주 난리였어요.

원래 저는 무인 가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꽤 겪었지만 신고

하면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과 그런 불편한 관계로 엮이는 게 싫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동네에도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더 이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번에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동네 장사라 학생들의 신상을 알아내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다음날 부모님과 학생 모두 6명을 한 곳으로 불렀지요. 제가 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녹화된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했고 물건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지급해달라는 저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저도 편하고 부모님들도 편할 테니까요.

솔직히 작은 동네 장사라 물건 값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망가진 가게 모습에 놀라서 발길을 돌렸을 손님들과 속상해서 잠 못 이룬 제 마음과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사과는커녕 자식이 한 일을 인정도 하지 않고 뭐 그만한 일로 그러냐고 도리어 따지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그럴 땐 말없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번에 만난 부모님들은 달랐습니다. 오셨을 때 진심 어린 사과도 해주시고 저 보고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부모로서도 잘 가르치겠지만 피해를 당한 제가 직접 혼을 내야 아이들이 더 깨닫는 게 있을 거 같다고 제대로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끔하게 혼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합의를 보고 돌려보내는데 아래저래 혼이 난 녀석들을 보니 제 마음이 또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씩 손



에 쥐여주며 “다음에 아줌마 만나면 인사하는 거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학생의 부모님은 돈을 모아 전한다는 문자와 함께 소정의 금액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모님들에게 각각 답장의 문자를 보냈어요. 말썽꾸러기 세 녀석은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같다고 녀석들에게 꼭 전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통닭 쿠폰도 한 장씩 보냈습니다. 속상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 잘했죠!

Letter 04



감자 한 봉지

고혜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제 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라 부르기엔 조금 낡고 오래된
빌라입니다. 계단식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소음도
심하고 복도에는 가끔 바람에 굴러온 낙엽이 나뒹굴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고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침엔 허둥지둥 출근하느라 앞만 보고 뛰쳐나
오고 저녁엔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니 옆집 사람 얼굴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이 늦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나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지친 몸을 이끌고 빌라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이 육신거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
냥 컵라면이나 먹고 빨리 씻고 자야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문 앞

에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순간 긴장도 됐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괜히 이상한 물건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봉지를 들여다보니 안에는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껍질에 흙이 살짝 묻은 걸 보니 막 수확한 듯 싱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얹혀 있었죠.

<옆집입니다. 시골에서 보내주신 감자랑 고구마인데 혼자 사는 것 같아 조금 나눠요. 맛있게 드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평소에 옆집 아주머니와는 제대로 말을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이사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분과는 주말마다 빨래를 널 때 복도에서 마주치는 정도고 저 역시 인사를 하는 정도라 그동안 나눈 대화라곤 “안녕하세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 생활을 조금은 아신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아…’라는 문장에서 저를 살짝 쟁겨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집에 들어와 감자 봉지를 싱크대에 올리는데 갑자기 어릴 적 시골집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가던 할머니 댁에는 늘 이렇게 흙 묻은 감자가 마루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여름방학에는 할머니가 손수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서 찜통에 쪄주셨죠. 그때 그 뜨거운 고구마를 손에 들고 호호 불어가며 먹던 맛, 그 기억이 고스란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마음도 허전했던 저는 감자를 몇 개 씻어 전기밥솥에 넣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부엌 가득 감자의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감자를 꺼내 반으로 갈랐을 때 노랗게 익은 속살이 보였고 버터 한 조각을 얹어 녹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무니 포슬포슬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마음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요. 그래서 초콜릿 한 봉지를 사서 옆집 아주

머니께 답장을 적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메모를 초콜릿 봉지에 붙여서 출근하는 길에 그분 집 앞에 조심스레 놓고 나왔습니다. ‘괜히 부담스러우실까?’ 걱정도 됐지만 그때 느낀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감자 맛있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치면 꼭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엔 “오늘은 많이 덥네요”라는 짧은 대화도 오가고 가끔은 또 문 앞에 놓는 작은 선물이 오가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접 담근 깍두기를 조금 나눠주시기도 했고 저는 회사에서 받은 다과 세트를 드리기도 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 한 봉지가 낯설고 삭막했던 공간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문득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작은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1로 산 음료를 옆자리 동료에게 건네거나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포장하며 이웃 아이에게 한 접시 나눠주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날의 비닐봉지는 제 하루를 또 저를 달라지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Letter 05

닭들도 의리가 있다

애청자

올 해 3월 초 지인이 유정란을 선물했어요. 공장에 닭을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알을 삼 일에 한 번씩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달걀을 모아서 10개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마침 이제 10살이 되는 아들에게 병아리를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어서 인터넷에서 부화기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달걀 4개를 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알을 뒤집어 가며 상태를 관찰하던 아들은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달걀에 대해 일자에 '아무 변화 없음'이라고 쓰다가 일지 쓰는 것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의 관심에서 벗어난 달걀은 제 차지가 되어 매일 뒤집어주길 5일, 정말 신기하게 딱 20일이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식

탁 옆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어디선가 ‘삐약삐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부화기를 열어보았지만 달걀은 아무 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데 또 ‘삐약삐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아리를 너무 기다리는 마음에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정말 삐약 소리가 맞았어요.

저는 얼른 다시 부화기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 소리는 틀림없이 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알을 꼼꼼하게 굴려 가며 들여다보니 그중 하나에 안쪽에서 쪼아서 생긴 균열이 조그맣게 생겨 있었어요. 놀라움과 반가움에 잔뜩 들떠서 얼른 아들을 불러 깨어진 부분을 보여주고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병아리를 볼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병아리들이 입으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삐약 소리는 배를 움직여서 내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알 속에서 부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병아리들이 ‘우리 이제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하고 소리를 내주지 않았다면 우린 그 병아리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청계 알은 껍질이 두꺼워서 어미 닭이 부리로 함께 쪼아주어야 만 나올 수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계속 삐약거리며 울 기만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여서 결국 알을 조금씩 깨주었더니 온 가족이 보는 가운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이름이 ‘삐약이’예요. 알 속에서부터 계속 삐약거리서 이름을 제가 삐약이라고 지었어요. 둘째는 어미 닭으로 건강하게 자라라고 ‘꼬꼬’, 막내는 아들이 자기가 짓고 싶다고 하면서 반반이, 양념이, 치킨이 중에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몹쓸 장난기로 막내는

‘치킨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40일 동안 백열등을 켜주고 매일 청소하고 물을 주고 참깨, 좁쌀, 양상추, 수박 등 먹을 것을 대령해 가며 매일 1시간씩 뜰 산책을 포함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키우면서 병아리들이 어미 닦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실감을 했지요. 산책을 나가면 병아리들이 제 주변 반경 1미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후다닥 제 발 옆으로 모였지요. 산책이 반복될수록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반경도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병아리들은 천적에게 노출되어 혼비백산해서 뛰어오길 수십 번이었어요. 천적은 주로 산책하는 강아지들이었지만 그 녀석들은 주인이 있었기에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까마귀와 길냥이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벌리면 병아리들을 사냥하려 했지요.

실제로 어느 날 병아리들이 소리를 꽂꽝 지르며 저를 불러서 얼른 뛰어가니 도둑고양이가 삐약이를 입에 물고 냅다 도망치고 있었어요. 병아리들도 있는 힘껏 고양이를 쫓아가고 저도 고양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무리가 함께 쫓아가니 고양이가 삐약이를 고양이 은신처 입구에서 놓아주었어요. 목덜미에 피를 철철 흘리며 돌아온 삐약이를 어쩔 줄 몰라 바라보는 아들 앞에서 얼른 삐약이를 품에 안고 살폈어요. 다행히 깊이 물리지 않아서 생명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계속 피를 뚲뚝 흘려 지혈하고 며칠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 후로 병아리들에겐 습관이 생겼어요. 주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과 한 녀석이 뒤처지거나 안보이면 꼭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이



었어요. 서로서로 살펴 가며 뭉쳐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영계가 된 병아리들은 2주 전부터 아파트 공터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와요. 물론 마침 방학을 맞은 제가 캠핑 의자를 들고 나가 앉아서 지켜보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하면서 함께 하지요. 이제 닭들도 자라나서 1층 베란다에서 공터로 날려 보내면 3미터 정도는 날아서 땅에 가뿐히 착지합니다. 그렇게 닭들을 공터에 보내고 저는 의자와 책을 들고 나가서 닭들이 노는 걸 지켜보지요.

그런데 며칠 전 닭들을 품에 안아서 데리고 오는데 치킨이가 유난히 차갑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닭이 원래 안으면 몹시 따뜻하거든요.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제 아침 베란다에서 닭을 날려 보내려고 하는데 치킨이가 뛰어내리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다른 두 마리가 뛰어내리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계속 머뭇머뭇하더니 밑에서 기다리는 닭을 향해 날아가려는데 한쪽 날개가 펴지지 않더라고요. 어찌어찌 땅에 착지는 했는데 절뚝이며 친구들을 겨우 따라갔어요.

아들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성화였지만 외적으로는 상처가 없었고 어딘가 골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병원을 데려가기엔 아직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할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다른 두 닭을 날려 보내려고 창틀에 올려주고 다친 치킨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컴퓨터를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한 바퀴 빙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다 돌아가 아이들이 놀던 컴퓨터에 도착했는데 닭들이 여전히 베란다 창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막내를 바닥에 내려놓자 그제야 창틀에서 내려와 치킨이 옆에 서더라고요. 치킨이를 기다리며 창틀에서 머물러 있던 삐약이와 꼬꼬가 너무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먹을 것을 주면 옆에 친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와구와구 먹어대던 모습만 보다가 안 보이는 친구를 기다리는 의리를 봐서 더 그렇게 감동이 밀려왔나 봐요.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키우면 성닭이 되는데 달걀을 낳으면 이제 시골로 다시 보내려고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에요.

Letter 06

금은방에서 생긴 일

김정자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집 앞 대형마트 안에 금은방이 생겼다. 식자재를 사러 갈 때마다 남편은 환한 빛에 끌리는 나방처럼 어김없이 황금빛에 끌려 유리장 앞으로 다가서곤 했다. 가지런히 진열된 귀금속은 내 삶도 저랬으면 싶을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 남편은 팔찌를 오래 들여다보며 꼭 살 것처럼 금 시세를 물었다. 금 시세는 남편이 물을 때마다 살금살금 올라가 있었다. 지구 한쪽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 때문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아닌 금속 가격이 왜 자꾸만 올라가는지 이만큼 살았음에도 세상은 모를 일 투성이다.

“낼모레면 일흔인데 그게 왜 필요해? 노인이 금불이 갖고 다니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명대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늘 아프다고 파스로 온몸 도배하고 살면서 손목 관절이 금 한 냥의 무



계를 감당해낼 수 있으려나. 그냥 이대로 평화롭게 삽시다.”

늘 쪼들리며 사느라 의식주에 필요한 것 외에는 눈도 마음도 주지 않고 살아온 탓에 사치품에 대한 내 소유본능은 오래전에 쪼그라들었다. 모든 사물을 필요와 불필요로 나눠버리는 마음이 이런 궤변까지 쏟아내는 것이리라. 남편이 나를 보며 피식 웃는다.

“사주기만 하쇼! 손목 아프면 발목에라도 차고 다닐 테니.”

가게 사장님도 몇 달째 금 시세를 묻고만 다니는 남편이 딱해보였는지 번쩍이는 한 냥짜리 팔찌를 꺼내 남편 손목에 채워주었다.

“그거 며칠 전에 만든 신상인데 이거 보세요. 팔목에 착 붙잖아요. 딱 봐도 사장님 겁니다. 앞으로의 금 시세는 저도 알 수 없지만 한 번 오른 게 내려가는 건 못 봤으니까 투자의 개념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이제 좋은 거 마음껏 하시면서 사실 때 됐잖습니까. 마음먹었을 때 장만하세요.”

남편이 팔찌를 낀 오른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만족해한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생경하고 날카로운 빛이 내 눈을 찔렀다.

하지만 팔찌보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손이 더 눈에 들어온다. 물을 찾아 깜깜한 땅속을 더듬어 내려가는 고목의 잔뿌리를 닮았던 하루하루의 삶. 긴 시간이 만들어낸 서툰 솜씨의 구불구불한 돈을새김을 너무나 익숙한 그 손등을 나는 처음 보듯 바라보았다.

함께한 40년의 고단했던 세월이 짧은 낮 꿈 같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남편은 새 장난감을 품에 안고 뺏기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팔찌만 들여다보며 내어 줄 생각을 않는다. 그래, 이제 그 긴 세월 견뎌온 서로에게 상을 줄 때가 되었다. 어떻게 팍팍한 세월을 견뎠는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둘만이 알고 있으니까.

“사 줄 거지? 안 풀어도 되지?”

남편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가게 사장님께선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내가 ‘돈줄’인 걸 어떻게 아셨지?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가려고 계획했던 유럽 여행은 나

날이 심해지는 남편의 무릎 통증으로 여전히 계획에만 머물러 있다. 많이 걸어야 한다는 유럽은 남편에겐 이미 무리일지도 모른다. 스페인과 튀르키예는 남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나는 폐루의 나스카 라인을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하나뿐인 집을 팔아서라도.

“젊은 사람도 유럽 갔다 오면 몸살이라는데 무릎 아프면 생고생이지. 강행군이라고 봐야해. 여행사도 유명 관광지를 한 곳이라도 더 넣으려고 일정을 빽빽하게 짜거든. 그래서 먼 곳은 젊을 때 가고 나이 들면 가까운 곳을 여행해야 한다잖아.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 이 나이에 무리했다가 아프면 낭패지. 낫지도 않아.”

내 계획을 듣는 모두가 입을 모아 무리라고 말한다. 남편 역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간다. 여전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무릎 수술은 몇 년째 계속 미루고 있고 두 손녀를 돌보고 있는 나 역시 딸이 쉴 수 있는 명절이 아니면 긴 시간을 내기 어렵다. 이번 여름 연휴가 딱인데. 이젠 건강마저 여행의 걸림돌로 하나 더 추가되어 버렸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내 인생 도대체 맞아떨어지는 게 없네. 남편까지도. 여행보다 팔찌가 더 좋은 사람은 남편이다.

현장 일을 하는 회사는 물론이고 주말 파크 골프를 치러 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왼쪽 손목에서 팔찌를 빼는 일이 없다.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건만 갑자기 모든 일을 왼팔로 하기 시작한다. 마트에서 카드를 내밀 때조차 왼손이다. 둘만 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여태 오른손잡이로 알고 있었는데 물 컵도 왼손, 커피도 왼손으로 마신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즉에 사줄 걸 그랬나.

Letter 07

진심을 주고받는 방법

김근희 | 경기도 성남시

대 학생 시절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도서관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화장실 칸 벽면에 붙어있는 휴지걸이 바로 위에서 말이죠. 별생각 없이 바로 도서관 분실물 센터로 가져갔습니다. 거기는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적으며 손짓으로 “거기 놓고 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인이 찾아오면 어디서 발견된 무슨 물건인지는 알아야 찾기 쉬울 것 같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이거 여자 화장실 둘째 칸에서 주운 건데요.”

“.....”

그런데 아무 대꾸가 없는 아저씨 반응에 머쓱해져서 아까 아저씨가 손짓으로 가리킨 곳에 지갑만 놓고 나오려 했죠. 한 걸음 두

걸음 몇 걸음 걸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학생! 학생!”

“네? 저요?”

“학생 이거 지갑이잖아? 여기 연락처 적어두고 가.”

갑자기 연락처를 적으라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연락처의 용도를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주인이 와서 사례를 하려고 하면 내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사례는 필요 없어요.”

아저씨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생, 그게 아니고 이게 지갑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나랑 같이 확인을 좀 하자고.”

“네?”

남의 지갑 안을 제가 왜 확인해야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제 표정에서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저씨가 설명을 하시더군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지갑인지 모르고 그냥 두고 가라고 했지. 그런데 지갑은 보통 분실물하고는 달라. 돈이 들어있다 보니 종종 오해가 생기거든. 이리 와서 나랑 같이 확인해 보자고.”

그러고는 지갑을 열어 속에 든 돈을 꺼내 하나하나 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더군요. 막상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액수와 지갑 속에 든 돈이 달라 오해를 받으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서 액수를 적어 놓으면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이름과 연락처도 적어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신 거죠.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고 아저씨께선 천천

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지폐를 세어놓고 보니 50만 원이 좀 넘더군요. 동전 몇 개까지 정확히 세어 액수를 적고서야 아저씨는 이만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다시 공부하러 도서관 자리로 돌아가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불러냅니다. 대체 어딜 갔었느냐며 말이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당연히 좋은 일 했다면서 칭찬해 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농담 섞어 핀잔을 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 번호 적힌 수표도 아니고 그냥 현금이면 막말로 가져도 모르는 거잖아? 게다가 화장실 칸 내부면 주워서 가져도 아무도 모르는데 아유, 바보!”

이 와중에 캠퍼스의 로맨스를 꿈꾸는 친구도 있었고요.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연락이 오겠지? 멋진 남학생이면 좋겠다. 이러다 커플 하나 탄생하는 거 아냐?”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가 뜨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받았더니 얼마 전 주웠던 지갑의 주인더군요. 앳된 목소리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지갑 잃어버리고 한참 찾았어요. 어디서 잃어버린 지도 기억이 안 나서 학생 식당이며 강의실이며 다시 되짚어 가봤는데도 없길래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혹시나 하고 도서관 분실물 센터에 가봤더니 어떤 학생이 주워서 맡기고 갔다면서 아저씨가 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에 “정말 고마워요” 할 때는 살짝 떨리듯 울컥하는 것까지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과는 다르지만 한 살 어린 후배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와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돈은 부모님이 보내주신 하숙비와 용돈이었고 그날

은 하숙비 내는 날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숙비를 내려고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지갑을 잊어버린 것을 알고 아찔해질 정도였다고. 일단 가지고 있던 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하숙비 일부분을 내고 모자란 건 주인아주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드리려고 하던 차였다고. 돈을 잊어버렸다고 솔직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죄송스러워 말도 못 꺼냈고 잊어버린 돈은 찾을 길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도서관에서 지갑을 찾으니 구세주라도 만난 듯했다고 하더군요.

듣는 제가 쑥스러울 정도로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더니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한 번 거절했지만 꼭 사고 싶다면 시험 끝나고 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길래 일단 알았다 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어느 날 정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혹시 잘 모르는 사람과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요. 만날 시간이 없으면 과사무실에 맡기고 갈 테니 학과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갑을 찾아준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또 후배에게 밥이든 선물이든 무언가를 받는다는 게 그리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사례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했고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후배의 진심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저도 20대였고 인생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베푸는 것보다 남의 진심을 고맙게 받아주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덕목임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그냥 학생 식당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다음번에



내가 한 번 사주고 하면서 관계를 이어 나갔겠지만 인간관계에 미 숙했던 지난날의 내 행동 때문에 그 후배에게 본의 아니게 무안 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이번에도 ‘한 푼도 안 챙기 고 고스란히 찾아주는 바보’ 노릇은 똑같이 할 겁니다. 하지만 상 대방이 보이는 진심에 대해 조금은 더 세련되게 처신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고 싶은 내 진심처럼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상대방의 진심도 귀하니까요.

Letter 08



낡은 슬리퍼

양민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얼 마 전부터 닳아빠진 슬리퍼가 계속 눈에 거슬렸다. 보 푸라기가 일고 찢어진 틈으로 솜이 빠져나왔다. 신을 때마다 발바닥에 닿는 부분이 신경 쓰였다. 걸을 때마다 쿵쿵 발망 치 소리를 내는 윗집 발소리가 싫어서 행여 아래집에 내 발소리가 들릴까 부려 폭신하게 엠보싱이 들어가고 가벼운 형겼 소재로 된 이 슬리퍼를 고르고 나는 수년째 색상만 달리할 뿐 반복하여 새로 사서 신고 있다.

발바닥이 낡은 슬리퍼를 신을 때마다 ‘새로 사야지’ 하면서도 주중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고 주말에 일이 생겨 나갔다 오면서도 번번이 깜박 잊고는 집에 돌아와서 슬리퍼를 보고서야 사지 않은 걸 알아차린다. 슬리퍼는 집 앞 지하상가 예쁜 앞치마와 스카프, 모자 등 아기자기한 소품을 파는 상점에서 산다. 나는 몇 년째 오



로지 이곳의 슬리퍼를 사 가는 오랜 단골이다. 슬리퍼는 발바닥
이 닿는 부분이 생각보다 쉽게 닳아 교체하는 주기가 짧다. 그래
도 폭신하고 바닥 두께가 있어 소음도 잡아주고 헝겊으로 만들어
가볍고 발에 착 붙는 편안함이 좋아 늘 같은 슬리퍼를 새로 사곤
한다.

이번 한 주는 야간 근무다. 월요일 아침 평소 습관대로 일찍 눈
이 떠졌다. 비가 연일 계속되니 화분 물 주기로 소일하던 이른 아
침 시간이 텅 비었다. 침대 곁에 벗어둔 낡은 슬리퍼에 저절로 눈
이 갔다. ‘오늘은 나가서 새로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다가 슬리퍼
를 집어 들었다. 보풀이 일어난 부분을 살피다가 ‘이걸 뭐매볼까?’

싫은 생각이 들었다.

결혼할 때 혼수로 필수였을까? 이불 사면서 받은 색동 반진고리 상자를 붙박이장에서 꺼내 왔다. 언제 열어봤는지도 생각나지 않는 그 안에 색색의 실들이 새색시처럼 가지런했다. 바늘꽃이에는 크기별로 바늘을 꽂았던 것 같은데 듬성듬성 칸이 비고 작은 것만 있다. 내가 바늘을 쓰긴 썼나 보다. 없어진 것도 있는 걸 보면. 바늘에 퀘어 있는 실이 검지만큼이나 짧아서 쓰다만 그 실을 빼내고 다시 실을 퀘어야 했다.

바늘귀가 안 보였다. 실에 침을 묻혀 손가락으로 비벼 빳빳하고 뾰족하게 실의 날을 세웠다. 실은 번번이 바늘귀를 엊나갔다. 눈으로는 그 작은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감각에 의지해 바늘귀 안으로 실 한 올을 넣으려니 수십 번 헛손질이 이어졌다. 뒤 목이 빠근하고 눈이 빽빽했다.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 옛날 이불 홀청을 시침하시던 할머니가 나를 불러 옆에 세우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어린 나는 그런 할머니가 귀찮았는데 지금 나는 그때 할머니 같아졌다. 그렇다고 자고 있는 딸애를 깨우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일어난다 해도 이런 나의 행동을 적극 만류할 게 분명하니 달리 방법이 없다.

‘안경을 맞춰야겠구나. 작은 글씨를 볼 때도 좀 불편했지.’

이런 생각을 하며 헛손질을 계속했다. 한 번은 걸리겠지. 살살 바늘 방향을 돌려가며 실 퀘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심 봤다!’를 외칠 만큼 짜릿한 감각이 손끝에 달라붙었다. 최대한 길게 양팔을 벌려 실 길이를 길게 가늠해 잘랐다. 다시 실을 퀘다가는 오늘 하루에 내가 다 늙을 판이었다.

구멍이 나 짹짜이가 된 흰 양말을 슬리퍼에 덧댔다. 길이가 좀

짧아 보이지만 신축성이 있어 쉽게 늘어나고 면이라 보송보송 촉감이 좋다. 수를 놓듯 긴 실이 엉키지 않도록 슬리퍼 위에 꿰맸다. 한 땀 한 땀 또 한 땀 긴 시간이 걸려 완성됐다. 다시 실을 바늘귀에 끼우는 일이 없이 마무리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슬리퍼를 바닥에 내려놓고 발을 넣어본다. 부드러운 면의 감촉이 좋다. 보송보송한 느낌이 좋다. ‘내가 했다’는 자부심에 뿌듯하다. 낡은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소생시키는 동안 그동안 몰랐던 새 기쁨을 얻었다. 나는 낡아서 버릴 슬리퍼 한 켤레에 원기를 다시 회복시켰다.

폭우와 수해로 벼려지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오늘 나는 슬리퍼 한 켤레만큼 쓰레기를 줄였다는 뿌듯함으로 지구 환경에 기울인 나의 작은 관심을 확인한다. 넘쳐나는 새 물건의 홍수와 범람 때문에 생기는 성난 지구의 역습이 환경 재앙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하기.
- 쓰지 않는 전등 끄기.
- 물 수압 조절하기.
- 장바구니 사용하기.
- 일회용품 덜 쓰기.
- 새 물건 들일 때 신중히 결정하기.
- 냉장고 속 식재료 비워내기.
- 벼려지는 음식 줄이기.

그동안 실천하다 마다 한 목록들을 다시 점검한다. 나 하나쯤 이런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지켜보자는 결심으로 닽아빠진 슬리퍼의 원기를 회복시킨 아침이다.

Letter 09

오이지가 익어가는 계절

이은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나 의 칠월은 청포도가 아닌 오이지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뜨거운 햇살 아래 밭에서 갓 따낸 오이의 푸른 빛, 바람
 결에 실려 오는 장맛 항아리의 냄새. 그 순간순간들이 여름이 성
 큼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고소하게 무친 가지도 좋지만 얼음을 동동 띠운 오이지 냉국 한
그릇은 저녁 무렵 지친 마음까지 시원하게 풀어준다. 어릴 적 외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여름 밥상에는 언제나 그런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백오이를 한 자루 사다가 마당 수돗가에 앉아 하나하
나 씻는 모습은 매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 같았다. 나는 오
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할머니, 오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다 지금 먹는 게 아니란다. 여름 내내 먹을 오이지가 될 거야.”

“근데 왜 항아리에 넣어요?”

“그 안에서 숙성돼. 똑똑한 오이로 자라는 거지.”

어린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서 팔을 흔들며 춤추는 오이들이 쑥쑥 자라나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할머니는 굵은소금을 항아리 바닥에 뿌리고 오이를 가지런히 쌓으셨다. 다시 소금을 뿌리고 또 오이를 얹으셨다. 반복되는 그 동작은 여름의 장단처럼 리듬을 탔다. 마지막엔 무거운 뚜껑을 덮고 하루이틀 뒤 끓였다가 식힌 소금물을 가득 부어 넣으셨다.

“오이지는 절이는 게 반이야.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지.”

할머니는 손끝으로 오이를 꾹 눌러보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 위로 쏟아지는 햇빛, 그 위에 드리운 나뭇잎 그림자. 그리고 그 사이로 서 있던 할머니의 뒷모습은 내 여름의 전부였다.

노르스름하게 익은 오이지를 꺼내는 날이면 부엌 안엔 익숙한 냄새가 가득 찼다. 찬물에 헹구고 살짝 짜낼 때면 ‘푸우’ 하고 한 숨 내쉬듯 소리가 났다. 다진 마늘, 고춧가루, 식초, 설탕, 참기름,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가끔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기도 했다.

“밥 한 그릇 뚝딱이지. 이거 하나면 여름 반찬 끝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내 밥 위에 오이지무침을 척 올려주셨다.

숨이 턱 막히던 한여름 저녁 밥상엔 어김없이 오이지 냉국이 올랐다. 얇게 썬 오이지를 찬물에 담가 짠맛을 빼고 꾹 짜서 유리그릇에 담는다. 식초, 설탕, 다진 마늘로 새콤한 국물을 만들고 얼음

을 툭툭 띄우면 그날의 더위도 함께 녹아내렸다. 한 번은 내가 얼음을 욕심껏 넣었다가 국물이 심심해졌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 씀하셨다.

“누가 여기다 물을 탔나? 오이지 맛이 시무룩하네.”

시무룩한 냉국과 할머니의 웃음은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다.

몇 해 전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던 칠월. 할머니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리고 그 후로 더 이상 할머니 손맛의 오이지를 맛볼 수 없게 되었다.

며칠 전 장모님께서 해주신 오이지 반찬을 먹었다.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오래전 여름 밥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짭짤하고 아삭한 식감, 새콤한 국물, 동동 띄운 얼음. 낯설지 않은 그 맛 속엔 잊고 있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밥을 먹었고 그리움도 함께 씹어 삼켰다.

오이지 반찬을 볼 때마다 할머니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 여름 저녁의 풍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지만 짭짤하고 새콤한 맛이 나를 조용히 그때로 데려다준다.

시간을 절이고 기억을 삐하고 마음을 무치고 계절을 담그는 일. 쿰쿰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오이지의 냄새. 이제 나는 여름이 오면 그 익숙한 향을 떠올릴 것이다. 나의 여름은 청포도가 아닌 오이지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Letter 10



남편의 외출 주문

장은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도산길

우 리 남편은 올해 마흔일곱 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살짝 이상하다 싶은 구석이 있었어요.
혼자 중얼중얼 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 남자 좀 이상한
데? 만나지 말아야 하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중얼거림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외출 준비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말, 신발, 바지, 윗도리, 담배, 라이터, 휴대폰….”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물건이 다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
주문’이래요. 어찌 보면 주술 같기도 하고 자기만의 마법 공식 같
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건 이 주문 덕분에 남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라이터도. 진
짜 한번도요! 여권까지 들고 나갔던 적도 있는데 안 잃어버리더라

고요. 진짜 묘하게 신뢰가 가는 주문이에요.

그렇게 20년 넘게 저는 ‘외출 주문’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젠 익숙해서 조용하면 제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어? 오늘은 주문 안 외우네? 어디 아픈가?” 싶을 지경이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금연을 선언했어요. 정말 대견하게도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죠.

“여보, 이제 담배 끊었으니까 ‘담배, 라이터’는 빼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거 빼면 머리가 복잡해져. 그냥 냅둬.”

하하하~ 정말 웃깁니다. 지금도 출근할 때 보면 여전히 외칩니다.

“양말, 신발, 바지, 윗도리, 담배, 라이터, 휴대폰….”

주머니엔 담배도 라이터도 없지만 입속에는 여전히 그 둘이 함께하네요. 이제는 뭐 평생 주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마 은퇴해서 등산 갈 때도 나중에 손주랑 놀이터 갈 때도 외치겠죠.

양말, 신발, 바지, 윗도리, 담배, 라이터, 휴대폰… 거기에 언젠가는 추가되겠죠.

“지팡이, 돋보기, 틀니….”

Letter 11

된장 맛 찾기

임영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우리의 전통음식이고 또 문화이기도 한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여성 시대에서 들었다. 요즘에도 장 담그는 집이 간혹 있고 특히 시골에서는 팔십 넘은 할머니들이 매년장을 담아서 아들딸네 집으로 보내고 있으니 아직은 장 담그는 전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문화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자신도 잘 보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본다.

김치와 쌈벽을 이루는 우리 전통음식 된장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지만 너무 흔한 음식이었기에 그 가치에 비해서 좋은 줄도 귀한 줄도 몰랐었다. 쌀은 떨어져도 된장은 떨어지지 않았었고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장독대 큼직한 항아리에 가득 담긴 된장은 끼니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찬이 되어 밥상에 올라왔다. 고추,

호박, 감자를 썰어 넣고 짭짤하고 똑똑하게 끓인 찌개를 듬뿍 퍼서 하얀 쌀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은 손이 가지 않았다. 시래기를 쫑쫑 썰어 훌렁하고 삼삼하게 끓인 국물을 냉물 마시듯 들이키면 10년 묵은 갈증이 해소된 듯 개운했다. 각종 나물 무치고 상추쌈, 장떡 등 매일 먹어도 질리지도 않았고 아깝지도 않았다. 내가 결혼한 후에는 엄마가 매년 넉넉히 보내주셨고 시어머니께서도 보내주셔서 아무런 아쉬움 없이 오십이 넘을 때까지 호사를 누리며 살았었다.

그러나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아 장 담그는 일을 못 하시게 되자 냉장고 가득 쟁여두고 먹던 된장, 간장이 바닥이 났고 이내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얻어 먹을 데가 어디 있겠는가. 마트에서 파는 된장은 입맛에 맞지 않고 전통 집된장을 파는 곳도 있었지만 가격이 비싼 건 물론이고 사 올 때마다 맛도 달라서 엄마의 된장 담그는 법을 제때 배워두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일단 아쉬운 대로 직접 담가보기로 하고 시장에서 메주와 항아리, 소금을 구입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또 주워 들은 대로 담가보았다. 하지만 새까만 거품이 부글거리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하루이틀이면 담가 먹을 수 있는 김치와는 달리 된장은 일 년에 한 번만 담글 수 있고 실패하면 또 일 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기에 더 어렵고 복잡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항아리가 숨을 쉬는 전통 항아리가 아니라서 또 메주가 수입 콩으로 만든 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다시 일 년을 기다려 전통 항아리를 사고 국산 콩으로 만든 메

주인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다시 담가 보았는데 모양은 그럴듯한 된장이긴 하나 맛은 옛날 엄마가 담가주던 그 맛이 아니었다. 어쨌건 해마다 담가 보았으나 어떤 해는 쓰고 어떤 해는 쉬고 어떤 해는 그런대로 먹을만하고. 그러나 내 몸과 혀가 기억하는 그 맛이 아니다.

뭐가 문제일까.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의 어머니, 내 친척,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물어봤다. 가서 보고 배우기를 몇 회 동안 반복하며 얻은 결론을 모아보면 첫째로 항아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물레질하고 잣물을 빌라서 소나무를 떼서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항아리에 담가야 맛있고 소금도 3년 이상 간수를 뺀 것을 써야 쓴맛이 안 난다고 했다. 또 메주도 깨끗한 것보다는 하얗고 노란 곰팡이가 피고 속은 거뭇거뭇하게 잘 뜨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이 좋은 메주라고 했다. 또 된장을 뜰 때 메줏가루나 생콩을 삶아 함께 버무려 넣으면 짠맛이 중화되고 더 맛있다고 했다. 또 조금 담는 것 보다 2, 3년 두고 먹어도 되니 많은 양을 담그는 게 낫단다.

전통 방식으로 항아리를 만드는 곳을 찾아보니 해남, 이천, 상주 등 몇 군데가 남아있다. 메주도 질세라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곳을 찾아냈다. 9대째 전통 항아리를 만든다는 상주로 남편과 함께 가서 노란빛이 도는 큼직한 항아리를 구입하고 메주도 스무동이 사서 지극 정성을 다해 담근 후 날마다 된장 항아리를 바라보며 맛있는 된장 간장이 되기를 뵙고 또 뵙었다.

된장을 가르고 두 달쯤 지나자 옛날 엄마가 항아리 가득 담아 놓던 그 된장의 향과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노란 모양의 된장이 부글부글 괴어오르며 물씬 익어가고 있었다. 멀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인 육수에 된장을 풀어 국을 끓여 남편에게 주니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한 그릇을 똑딱 해치운다.

아들들에게도 푸짐하게 나눠주고 지인, 친척들에게도 나눠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더 달라, 돈 줄 테니 팔아라, 어디서 사 왔나, 진짜 직접 담갔느냐’, 남편에겐 ‘저렇게 아무진 부인을 둬서 얼마나 좋겠느냐’는 칭찬이 날아왔다. 그러니 남편은 “이거 내가 상주까지 가서 사 온 항아리에 담근 거여~” 하며 입이 귀에 걸린다.

6살, 3살 손녀들도 삼삼하게 끓인 국물을 음쏙음쏙 떠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며느리들도 끓이는 방법을 묻는다. 패스트푸드 음식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들도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음식을 아무 거부감 없이 먹는 것은 수천 년 내려온 고착화된 우리 민족의 체질이 아닌가 싶다.

10년 넘게 실패를 반복하며 드디어 찾아내고 만들어낸 엄마의 맛, 전통의 맛. 해보니 그다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몰랐을 뿐이다.

너무 맛있다며 자그마한 통을 들고 ‘리필’을 요청하는 지인에게 커다란 통을 내어 듬뿍 퍼주며 내년에도 많이 담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은 “이 사람아, 그렇게 퍼주면 우리는 뭘 먹는당가. 우리 먹을 거 남겨두고 퍼주소잉~” 하며 핀잔을 퍼붓는다.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가 꼭 싫지만은 않은 듯하다.

내년에는 좀 더 담아서 누구도 주고 누구도 챙겨줘야지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다. 없어서 몰라서 먹을 곳도 얻을 곳도 없어지는 우리네 된장. 담가 먹는 집도 문화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아쉽고 또 아깝다.

Letter 12

한 아이를 키우는데

김기현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의 열기가 온 나라를 달구던 해 3월에 아내를 만나서 8월에 결혼했습니다. 코드가 맞아서 대화가 잘 통하고 무엇보다 온 국민이 빨간 티를 입고 모여서 저희를 응원하는 줄 알고 속전속결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온 국민의 응원은 우리 부부를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비웠는데 9년 만에 기적적으로 자연임신이 되어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적 장난감 피아노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서 문화센터에 보냈는데 6학년이 되니 예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개인지도를 해주던 선생님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예중에 갈 실력



은 안 되지만 도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조언해 주셔서
안심했습니다.

입학원서를 내고 실기 시험 보고 나오더니 하나도 안 떨렸다
고 하길래 살짝 불안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딸아이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안 보
낼 수도 없고 걱정이었습니다. 집은 경기도 하남인데 학교는 분당
에 있어서 한 시간 반 버스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타면 앉아서 갈 수 있고 성남에
서도 시내버스를 갈아타면 앉아서 갈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예비

소집일에 아내랑 아이가 3000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는데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 형님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딸아이가 붕어빵이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다녀보고 힘들면 동네 일반 학교로 전학 오자 했는데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다양한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학교다 보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통학길에는 우리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이 나서 제 딸아이가 버스를 타면 어린것이 그 먼 데까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딸에게 사탕도 주고 빵도 줘가며 칭찬을 해주니 통학은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떤 형님은 ‘우리 자식들은 나이를 먹어도 뛸 하고 살지 몰라 캥거루족의 사명 선언문만 묵상하고 있는데 남의 딸이지만 너무 기특하다’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라 층간 소음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래층에는 작은 선물을 한 모양입니다. 퇴근해 보니 작은 롤케이크와 마음을 담은 카드 한 장이 저희 집 현관 손잡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음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나셨을 텐데 다 이해해 주고 응원한다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했습니다. 같은 층에 세 가구가 사는데 만날 때마다 딸아이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좋은 이웃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책에서 보았던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모 세대가 자녀를 대리만족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

동의 관심과 돌봄으로 창의적인 꿈을 꾸고 찾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딸아이에게 들어보니 본인 뜻이 아닌 부모님 강압에 못 이겨 입학했다가 부모님과 다투고 전학 가는 경우가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적성과 관심사를 관찰하고 진로지도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대리만족을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실기 평가 받을 곡을 연습하는 딸아이에게 연습하기 전 작곡가가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곡을 작곡했을지 상상해 보고 곡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하루하루 그 곡과 친해지는 과정으로 삼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주는 느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시도를 해보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처음 곡을 받았을 때는 한숨만 쉬더니 어느덧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지금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면 훗날 하루하루 아이의 마음에 포개어진 감성과 느낌을 안고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간다면 행복한 인생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자라는데도 햇빛과 물과 공기와 토양이 필요하듯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어른다운 도움은 간섭이 아닌 관심, 집착이 아닌 배려와 사랑, 평가와 비교가 아닌 지지와 격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원예술중학교 2학년 김세은! 너의 꿈을 엄마랑 아빠 그리고 아빠랑 같이 일하는 삼촌들, 또 이웃들도 응원해 주고 계시니 열심히 즐기자. 언제나 응원할게! 우리 딸~ 파이팅!”

Letter 13

서림복지원 진료실에서

장홍원 | 충남 서산시

저는 서산에서 작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장홍원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선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2005년 여성시대에 조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이야기를 보냈었는데 송승환 님이 사연을 읽어주셨었어요.

어느덧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청년은 푸근한 중년이 되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원의로서 조금 특별한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진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2012년 봄 저는 잔디밭 위에서 동네 치과의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자 정인성 원장님이 저를 포함한 몇몇 젊은 치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홍원아, 이리와 봐. 여기가 복지원 진료실이야.”

그렇게 서림복지원의 치과 진료실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

어요. 건물 반지하의 작은 방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는 덩그러니 치과 의자 하나만이 놓여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에 약간은 읊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곳은 제게 웬지 모를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매달 한 번 넷째 주 토요일마다 복지원 진료실을 찾고 있습니다. 서림복지원은 서산시 음암면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200여 명의 원생들과 직원이 함께하고 있지요. 정문을 지나 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른쪽에 단층 본관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본관을 바라봤을 때 왼쪽편에 치과 진료실이 있습니다. 예전의 작은방에서 이전해 지금의 진료실이 되었지요.

이곳 원생 중에는 움직이는 것 대화하는 것 등에 제약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과에선 치료받을 수 없는데 복지원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치료 과정에 대해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치료를 진행하는 진료실은 난장판이 되기 십상이죠. 의자에 누워 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소리를 지르고 팔뚝을 꼬집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간신히 치료를 이어갑니다.

코로나 전에는 인근의 서령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마음(心) 봉사회’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치료받는 원생들의 행동 조절을 도와주는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를 해나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곳의 원생들도 반복적인 치과 치료가 경험으로 학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행동 조절이 많이 수월해지더라고요.

그 ‘마음 봉사회’는 두 번째 기수를 끝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길고 고단했던 코로나 시기의 여파가 컸지요. 학생들의 봉사가 끊긴 것이 지금도 많이 아쉽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으니까요.

사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복지원에서는 독감, 백일해 등 유행병이 쉽게 퍼질 수 있었기에 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봉사를 해주시는 내과 의사 성기양 선생님과 소아과 의사 황규은 선생님은 든든한 베풀목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예전처럼 조금 더 많은 분의 관심이 돌아온다면 좋겠습니다.

치과 진료실은 여러 원장님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열두 명의 서산 개원의들이 진료를 담당해 주고 있어요. 진료실에서는 한 달에 3~4회씩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한 번에 십여 명의 원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석 제거와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다양한 진료가 진행되지요. 운동 능력이 제한된 원생들은 일상적인 칫솔질조차 어려워 치석이 쉽게 쌓이고 그로 인해 잇몸 염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라 불리는 구강 내 치석 제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여 치주염으로 진행을 막고 치아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무더웠던 여느 토요일 평소와 같이 저는 오전 내내 ‘스케일링’ 진료를 한 다음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니 복지원 치과 담당 정경숙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치석 제거한 진우 씨 피가 안 멈춰요. 어쩌죠? 사진 보내드릴까요?”

사진으로 받아본 진우 씨는 입에서 피가 넘쳐 밖으로 줄줄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즉시 달려가기에는 진료실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같이하고 있는 원장님들께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즉시 치치를 해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았지요. 다행히 마침 가까이 계셨던 정인성 원장님이 바로 복지원으로 달려가 주셨고 출혈 지점을 찾아 꿰맨 후 어느 정도 지혈이 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날 늦게 복지원에 가서 진우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구강 내 출혈이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시름 놓으며 여러 치의가 같은 목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실감했습니다.

서림복지원 치과 진료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산시 치과의사회와 서림복지원이 힘을 합쳐 진료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23년간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료 봉사를 했던 시간은 이제 10년을 조금 넘겼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20년 이상, 평생을 해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솔직히 토요일 아침 진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항상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무엇보다 난장판 같은 진료실 상황이 끔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원생을 치료해 보면 여기는 그 어떤 곳보다 제 손길이 필요한 곳임을 알게 됩니다.

20년 전 여성시대에 보냈던 사연에서의 저는 낭만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 생활은 월급 받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에서 조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즐겁게 치료할 수 있었지요. 중년이 된 지금도 정기적으로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은 그때의 낭만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있기에 가능한 일 같습니다.

여성시대를 통해서 제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를 갖게 되네요. 이 사연을 빙어 서림복지원의 진료실을 만들어주신 선배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료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동료 치의들과 저희 치과 직원들 그리고 복지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제 결정을 존중해주고 늘 곁에서 진료를 도와주시는 간호사 정경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아들의 손편지

파리 여행

김숙경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로

엄마. 저녁 올라와서도 쉴 시간이 부족해 짐들이요.

하루 땡기 오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여행지부터 면면치 못한 내 건강을 염려하는 아들 말이로

이틀 먼저 아들네로 올라갔다.

가장 반 셀레반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파리 풍경으로 젖어

있었을까 하는 꿈 모양 아저 아래로 퍼지에서 울울 울울 소리했다.

파리 시내서 가장 높다는 용아트르 인데.

그곳 "사랑해" 박 암에 서서 우리들의 첫 번째 인생샷을
찍었다.

여러 학기들의 숨결을 뒤로하고 강발장의 이야기가 돌아오는

노드르당 성당은 암수했다.

데위에 옥을 죽이고 꼭한번 보고싶었던 내 버깅리스트의 그곳으로
바쁘게 걸음을 옮겼을때 노을이 내리고 있었지만 사자여성이라
제도에 대해 저마다 시간을 고대하여 기다리며 암로안 들인
세느강 유람선에 올랐다.

22시정한 수영복은 예술가들이 지어낸 예술을 끝난후 배켓트 셋이던
세느강 세느강 올빛은 탁해 있었지만 예술대에 올빛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냥 활활으로 파리의 밤을 즐겼다.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이 들보였던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oon 차치고
이렇게 잘려한건 그것이 나폴레옹을 좋아해서이다.

기대하고 화려한 세느사교궁전 관광후 세느사교정원을 찾았을때
간시간 관광후 모두 피곤했음에도 열심히 짹사를 자치하는 저
엄마를 떠나고 기억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 짹여주겠다고
우울각도 짚고 자 아빠쪽으로 절실히 칠각하여 잘모찌오 사진들.
그로다 카메라 사용자가 다시 많은 사진. 수영복 즐겁식들과 화려한
궁전의 사용자에보다 내집에는 더 빛나고 있다.

있어. 여기서는 에스기하고 오리 꼬리이보고 가야해요. 꽃이 사사건
하지만 그게 첫째. 우리말로 그루밍한 말썽이에요.

이들이 말했어.

의료에서처럼 사시면 것의 장내가 끊기 보고도 남는다고. 안내.

부실한 이유으로 그때까지 살던 장내 안내 그일의 내용으로 되는
아님에도 단호히 내입에서 나왔다.

이제 할머니, 할머니는 그걸 102살 까지만 아니요. 전이가 말했어.

그이- 할머니 유태인씨.

아침 충식이 2번서 대화는 조용해졌지만 저녁에는 동안 울이
여약했을은 함께나온 그릇 빙빙았던은 아니었음을 —

장이집원에서 너무 예쁘다며 소아재경 좋아하는 내가 이전에 그을여라
정말 너무 예쁘세요 하여 내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날지도
짜이죠 우리 여우리는 수많은 그릇 끌려내 내개는 더 아예쁜 사람이야.
모네의 꿈을 보고 고흐의 마음을 거울에서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세이가와
그들이 말씀하신 육수수가 자라고 있는 꿈장을 보여 그를 추월하기도
했다.

하늘의 죽적이었을까. 우리가 방황하기 이틀전 알린 트레킹길.

자아내는 끝에 뜨래보다 키가 큰 8살 준이.

가녀린 청춘으로 떠나기 좋은 날을 지나고 나는 그런 것들이 어려울 강하고
알프스의 광개를 나침발이 나눠마신 그길은 내인생 최고의 천국으로
기억되었던 것 같다. 사는 데 끌방배처럼 한 번도 아름다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손자손 꾹꾹하고 예로는 아들첫인생 첫걸도 하며 울었기도
함께 나온 것이다.

가짜로 산악기차를 타고 올라왔던 "하늘길을 전망대"

위쪽 암생이나 조그만 푸른 터번도 못가는데 흰이가 험준하던 힘에
사진자가 몰려오면서 하는 말이 순간 나도 모르게 올라왔던 그곳에서
인증샷과 함께 아래 오백광도 함께 짙어드릴게요 라며 저도(시아가)
기분이 좋았고 우렁찬 기운은 예전의 선스로 옛날에 아들과
딸들이 그곳의 첫 번째 풍광보의 활활한 시장을 찾기도 했던
이해인의 첫번째로 무로주사 맞은데 효과가 있었는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한숨도 못잤다.
우리가 올른 대로 대부분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여기에 그들을 찾아 있었을때 고단한 짐승들을 바위들에 세고 물려야
보던 주의 까만 눈동자.

조록 잊사귀 사이로 아파인 햇살. 바람의 향기. 주의 까마득한
눈과 땀(땀). 깊은 순간들 ...

그 순간을 예술의 담아온 새야기의 마음.

침울로 험험히 소통하는 날도 오늘처럼 경계하게 간직하고 걸친 순간.

설운의 아름다움에 배져 한없이 허무적했던 내인생. 사랑은 기쁨
흘러면서 이만하지만 오는까지 잘견뎌내주니 꽃 고맙다. 내인생아!
세상은 뿐에 살아온 한 기하고 가슴같이 깨끗하게 해준 소중한.
내인생기에 가장 가슴찡한 6월. 이제 나는 떠나야했던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지 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 고맙다. 아들아!

내 가족이 되어준 새야기와! 고맙다.

한번에 혼장을 빗자기 달아온 우리집이! 고맙고 또 고맙고
행운이 많아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했고 경계를 아셨고 가슴가득 안고는
시름으로 드래그해 해방하자구나 말씀이 지났어도 가사지 않은 여름은
축소하여 여성시대를 사랑하는 할머니 드립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8540] 휴가 맞이해서 가평 비 피해 지역에서 동료들과 봉사활동하고 왔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네요.



[4751] 날이 너무 더워 물장수 쓰러지겠네요. 여 성시대 사랑합니다.



[4152] 토요일 눈뜨자마자 홀자 계시는 엄마 일도 우러 왔습니다.



[5163] 여기는 김천. 후무사자두 수확하는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고 있어요. 새참 먹으며 여성시 대도 잘 듣겠습니다.



[4197] 이번 경남 산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천 제방이 유실돼 복구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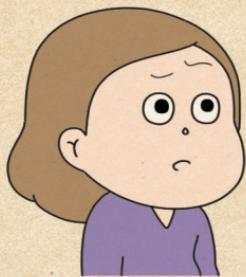


[2221] 상쾌한 아침 걷기하며 기업은행에서 여 성시대 책 가져 왔어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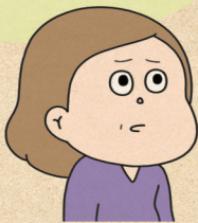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여성시대 가족 황지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뭐?
공창집에서
알바를 한다고?

아니 네가 무슨 알바를 해~
마성년자가 공부나 하지.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
엄마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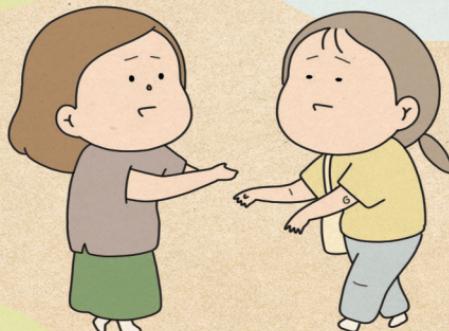
남편의 사업이 기울며 아이들이 철이 든 건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말에
아직 어린 나이인데 너무 빨리 철이 든 건 아닌지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눈엔 아기처럼 느껴지는 아이가
이 더운 날 허둥대며 음식 나르다 불에 데는 건 아닌지,
평생 안 해본 일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결국 아르바이트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고 말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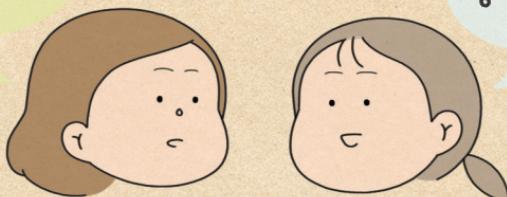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장난 아니야.
근데 사모님이 나 일 잘한다고
하시던데?



엥? 네가 무슨
일을 해봤다고?

정말이야~



이렇게 한 뼘 더 자란 아이를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근데~같이 일하는
남자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오늘 만원 팁 받았다?
근데 난 못 받았어.



같이 일하는 친구가 팁을 받는 모습을
부러워했을 땐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땐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음 날 변장을 하고
딸의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바빠 일하는 땐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분들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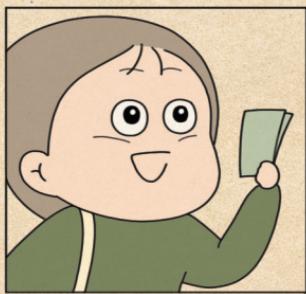
저 실례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 아르바이트하는
여자아이 엄마거든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아이에게 팁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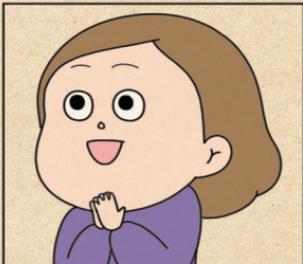
두 분은 감사하게도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 정말?

엄마! 엄마엄마!
나 오늘 팁 받았다!
2만 원이나 받았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기뻐하는 딸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더 행복했습니다.



미래 ESS산업의 선두주자



IBK기업은행 영천지점 거래고객
(주)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한중엔시에스는 차량 부품 제조업체로 시작하여
현재는 ESS 냉각시스템을 주력으로 개발·제조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ESS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친환경 중심의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한중엔시에스는 선행 R&D를 통해 쌓아온 설계, 개발, 양산 프로세스의 노하우와 첨단 소재 및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고객의 신뢰와 제품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한중엔시에스는 ESS·전기차 부품을 개발·양산하는 기업이다. 1995년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다가 2021년 에너지저장 장치 제조 및 양산 업체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한중엔시에스는 전기에너지의 충·방전으로 발생한 열량을 냉각 및 제어하는 수냉식 냉각시스템을 개발하여 냉각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부품인 쿨링 플레이트 및 칠

러 등을 주력 제품으로 개발·제조하고 있다. 한중엔시에스의 ESS 시스템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열 방지 및 소화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SDI로 ESS의 배터리 팩 모듈과 ESS용 수냉 쿨링 시스템인 칠러 및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모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및 북미를 넘어 글로



벌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한중엔시에스의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설립 30주년이 되는 한중엔시에스의 발전은 김환식 대표의 끊임없는 도전과 미래를 내다본 선견지명 덕분이었다.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제조업체로 창업하여 IMF를 극복하고 회사를 안정화 시켰지만 창업 10년째 되던 해인 2005년 한중엔시에스만의 특화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 회사 내에 연구소를 세우

고 선행 R&D를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처음 시도했던 수소 R&D는 100억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김환식 대표는 R&D 방향을 재정립하였다. 내부적으로 선행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현실적인 R&D에 도전하였다. 이 때 시작한 것이 에너지저장 장치 기술 개발이다. 당시 자동차 부품 회사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전기차 시



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1년 테슬라의 전기차 출시 이후 세계적인 기업이 모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ESS로 방향을 잡았다. 당시 국내에도 ESS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화재 문제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것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성과를 냈다.

“자체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인재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차 전지 관련 학과가 없

어서 2013년 사내 대학을 만들어 인재를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독서를 통해 인문학 소양을 쌓아야 창의력과 상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내 북카페를 만들어 자기 계발을 돋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영천지점 이지은 지점장은 “한중엔시에스는 실패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성공적인 업종 전환을 이루었고 직원들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서포터 하는 모범적인 기업”



이라며 “기술만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대표님의 철학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인으로 등단까지 하신 대표님의

인문학적 소양이 직원들에게도 이어져 창의력 가득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중엔시에스가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도 함께하겠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영천지점 이지은 지점장(왼쪽)과 (주)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

❶ (주)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
2. 인재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라.
3.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 창의력을 높여라.

(주)한중엔시에스

대 표 김환식
전 화 054-337-5050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379
홈페이지 <http://www.hjncs.com/>



K-뷰티의 혁명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거래고객

(주)파이온텍 김태곤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볼륨 톡스 오리지날 펩타이드 에센스!

3~40대 여성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음 직한 국민 에센스다.
이 제품을 제조하는 (주)파이온텍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시장을 확장하며
K-뷰티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이온텍은 2001년 창업한 바이오 소재 기업이다. 나노-바이오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K-뷰티 시장의 리더로 우뚝 섰다. 2015년 출시된 화장품 ‘볼륨 톡스’는 파이온텍의 경피흡수시스템 기술(TDDS,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을 적용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만 220만 병을 팔아 약 2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 볼륨

톡스의 모조품이 147개나 될 만큼 제품력과 브랜드를 인정받았고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당사 최고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한 파이온텍은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영업 길이 막히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연구



에 매진하여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 시기가 전화위복이 됐다. 코로나19에도 산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그 기간 동안 파이온텍은 '스피큘 기반 피부 유효 성분 전달 기술'을 연구하여 세계적인 학술지에 SCI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태곤 대표가 직접 연구한 세계 최초의 '스피큘 기반 피부 유효 성분 전달 기술'은 2%에 불과했던 기존 화장품의 피부 흡수율을 73.4%까지 증가시키며 피부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스피큘을 활용한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마이

크로니들(미세침) 화장품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흡수력을 높이는 구조지만 파이온텍은 구조 제어된 스피큘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피부에 흡수된다. 파이온텍의 구조 제어 기술은 빨대 모양의 구멍을 형성시킨 스피큘에 유효물질을 탑재하는 세계 최초의 독보적 기술로 스피큘의 길이 및 기공 사이즈를 제어할 수 있다. 파이온텍의 스피큘 기반 피부 유효 성분 전달 기술을 활용한 경피약물전달시스템은 다양한 검증과 임상이 완료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이온텍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자마자 일본과 중



국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2023년에는 일본 에스테틱 유통 기업을 통해 4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작년 6월에는 중국 SNS 속품 커머스 플랫폼 촌이쇼우에서 파이온텍의 독자 기술인 경피흡수시스템과 세포전달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PSI 엑소타이드 3종 세트'가 30분 만에 1만 세트 판매 되며 25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파이온텍은 코스메틱 기업이 아닙니다.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 화장품도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파이온텍의 경피약물전달시스템을 통해 화장품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앞

으로 독자 개발한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파이온텍은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충북 오송2생명과학단지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글로벌센터 구축을 진행중이다.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김태곤 대표, 그런 그에게 결코 실패는 없다.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박현숙 지점장은 “파이온텍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1호 기업으로 창업 초기부터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며 코로나



19 등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한 가족 같은 기업”이라며 “IBK기업은행은 파이온텍의 잠재적 가능성을 믿고 스피클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인허가 관련 운전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BK기업

은행이 파이온텍의 우수한 기술력 및 유통과 물류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며 “코스닥 입성을 추진 중인 파이온텍이 안정적인 우량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파이온텍 김태곤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박현숙 지점장

!(주)파이온텍 김태곤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오직 기술력을 통해 차별화하라.
2.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3.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도전하라.

(주)파이온텍

대 표 김태곤
전 화 043-218-2801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3
홈페이지 <https://www.pion-tech.com/>

코너 속 편지

여자는 모른다

- 81 아내의 자유시간
- 84 아버지의 마음
- 87 들리나요 내 마음
- 91 미남 미남 미남

사랑 사랑 사랑

- 95 재미없는 나의 재미있는 인연
- 102 떡볶이가 만들어준 인연



여자는 모른다

아내의 자유시간

애청자

아내와는 음악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수도권에서만 살아온 도시남자라 사투리를 쓰는 아내의 모습이 처음부터 귀여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왔고요. 이름은 김희은입니다.”

“근데 사투리 많이 안 쓰시네요?”

“하모예~ 우리 응가랑 연습 많이 했어요.”

“예? 응가요?”

“아, 응가 몰라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언니.”

“아~ 진주에서는 언니를 응가라고 해요? 하하 저는 다른 쪽 응가만 알아서.”

“아! 그건 응가는 언니는 응가~ 완전히 다른 건데. 나 그렇게 쑥쑥

한 사람 아니에요. 아! 쑥쑥하다 이것도 서울 사람들은 모르나?”

“네, 미안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입에 자쿠를 달든가 해야지. 입만 열면 자꾸 진주말이 나오네요.”

“에? 자쿠 달지 마요. 저는 그 말투가 너무 귀여워요.”

“에나? 서울 사람들은 진짜 그런 말 잘하네요.”

아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다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투리 쓰는 게 제 눈에는 정말 많이 귀여웠어요.

아내에게 꽃도 선물하고 사귀자는 고백도 하고 데이트하면서 먼저 손도 잡으면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남사 스럽다, 돈 아깝게 뭐 하러 사 왔냐, 덥다’ 하면서 잡은 손을 빼기도 했지만 우린 서로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년. 결혼한 부부끼리는 이제 형제고 의리로 산다고 농담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 제법 서로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여전히 ‘연인 때의 사랑’을 이어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처음 결혼할 때 저희 두 사람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서로 한 가지씩 말하기!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존중해주기! 저는 제 취미생활인 산악바이크를 선택했고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 밤에 1시간씩 자유시간을 갖겠다고 했어요.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외출을 하거나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시간. 아내는 특히 밤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음악도 듣고 일기도 꼬박꼬박 쓰는 성격이거든요.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 못 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동안 나름 잘 살아온 거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안정된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걸까요? 아내에게 있는 걸까요?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융통성이 좀 생겼습니다. 유일한 취미였던 산악바이크를 이제는 안 타도 그만인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아내는 여전히 그놈의 혼자만의 시간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저는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텔레비전 볼 때도 누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수다도 떨고 맥주 한잔에 야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위로를 주고받고 싶거든요. 근데 평소에 다른 건 다 잘 참아주고 맞춰주는 아내가 이것만은 타협이 안 됩니다.

“여보, 오늘 맥주 한잔 같이할까?”

“나 혼자 있고 싶은데.”

“OTT로 영화 한 편 보자. 재밌는 거 떴던데?”

“혼자 봐. 내 방에서 조용히 음악 듣고 싶어.”

저도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부부가 같이 문화생활 좀 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서로 초점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납니다. 맘에도 없는 막 말이 막 나가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살지. 결혼은 왜 했어? 왜?”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아내에게 서운한 제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자꾸 떼를 쓰게 되는 거 같아요. 아내의 자유시간! 머리로는 인정해 줘야지 하는데 마음은 막 외롭고 서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화나고. 무슨 좋은 해결 방법 없을까요?

여자는 모른다

아버지의 마음

애청자

저는 올해 꽉 차다 못해 훌러넘치는 나이 오십의 총각입니다.
물론 마음은 아직도 스무 살이죠. 운동 마니아라 체력도 좋고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 결혼을 안 해?”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뭐든 간에 늙어서 외로워. 얼른 짹 찾아야지.”

이런 잔소리, 걱정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다 아는데요. 저는
정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선 남자의 속마음 뭐든 털
어놔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하려
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1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삼 남매를
어머니 혼자서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키우셨죠. 어머니의 고

생은 그 당시 어린 제가 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되어 보였고 저희 삼 남매 역시 어려운 가정형편에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사리손이라도 어머니께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 해보려 했지만 마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되던 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신문 돌리기. 당시 월급 만 원을 받으면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두어 시간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남짓 운동 삼아 신문을 돌리고 나면 저에게 주어지는 월급 만 원! 그 돈이 무엇보다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당시 중국집 짜장면 가격이 천 원인데 어린 동생을 데려가 사 먹이기도 했고요. 친구들이 쓰는 거 부러워서 쳐다만 봤던 실내화랑 필통도 샀어요. 지금은 공무원이 되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된 동생은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진짜 한 달 내내 형 월급날만 기다렸잖아. 그때 짜장면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그때 형이 사준 그 맛이 안나.”

흐뭇하고 뿌듯한 기억.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게 되었고 대학과 군대, 취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 소개팅할래?”

“콜~”

“이번 주말에 소개팅?”

“좋아 좋아~”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몇 시? 어떤 스타일?”

그렇게 많은 소개팅을 하며 나도 평범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요. 현실은 참 냉정하더라고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제대로 공부도 못해서 정규직은 꿈도 못 꾸고 계약직만 전전하던 저는 많은 여성에게 외면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기던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눈비 맞아가며 힘들게 신문 배달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왜 아버지는 어린 우리만 두고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공부하며 자랐더라면’ 이러면서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것만 같은 아버지를 향해 원망과 푸념을 쏟아내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한참을 울고 나니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배움도 부족하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무슨 결혼을 해서 누굴 책임질까? 아버지도 원해서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데 어머니나 잘 모시자.’

비록 내게 힘든 삶을 물려 주셨지만 누구보다 보고 싶은 아버지. 삼 남매와 젊고 아름다웠던 한 여인을 두고 먼저 떠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때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는 치열하게 살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저 결혼 못 해서 왔다고 타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들리나요 내 마음

애청자

올여름 ‘118년 만의 폭염’이라는 말을 듣는데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눈에 밟혀서 집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괜히 미안해집니다.

제 남편은 냄새 잡는 일을 해요. 예전에는 화장실과 싱크대 배수구 쪽 악취를 잡는 출장 기사로 일했는데요. 요즘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위아래 층과 연결된 냄새 문제도 많아서 주방 환기 쪽도 담당하고 있어요.

“여보~ 어디야? 오늘도 많이 늦어?”

“어~ 지금 현장 일 하나 끝내고 잠깐 도면 구하러 가고 있어. 이번에 그 새로 짓는 아파트 주방 타입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일하는 범위를 늘리면서 남편은 근처 아파트들 A타입부터 E타입까지 도면을 다 구해다 놓고 수험생처럼 밤새 책상에 앉아 공부

를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나는 실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 밖에서 일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개는 비 와도 일 못하고 겨울엔 추워서 일 못하고 요즘 같은 더위에는 숨만 쉬어도 힘들대.”

매사 긍정적인 남편은 혹여 제가 걱정할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안 힘들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장비 들고 지하에서 위층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요. 안 그래도 열이 많은 체질인데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가 갔다가 최근에는 오십견이 왔는데도 인건비 아낀다고 아픈 어깨를 참아가며 혼자 천장 작업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에어컨이라도 빽빽하게 틀어진 집이면 좀 나을 텐데 작업하는 동안 선풍기는 커녕 냉수 한 잔 안 내주는 의뢰자분들도 꽤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남편 옷은 더 빨리 닳고 삭아요. 하루 종일 땀에 절었던 남편의 옷을 빨면 섬유유연제를 아무리 쓰고 건조기를 열심히 돌려도 마른 옷에서 걸레 냄새 비슷한 게 계속 나기도 해요. 그런 옷을 입고 또 땀을 흘리니 일하는 남편은 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기가 쉽지 않으니 그 옷을 입고 밥을 먹으러 가거나 편의점에 커피라도 사러 가면 대놓고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그 집은 어땠어? 상담할 때부터 느낌이 영 싸하다고 했던 그 집 말이야.”

“응, 다녀왔지. 역시나 안 주더라. 가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했는 데도 약속한 출장비를 깎고 또 깎고. 아이고, 말도 마.”



“왜? 뭐라면서 안 줘?”

“천장 다 뜯고 석고보드 뜯고 냄새의 원인을 겨우 찾긴 찾았는데 당장 수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상복구해 드리고 당장 작업이 안 되는 이유도 다 설명했는데.”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온라인 카페에 여기 업체 이름 안 좋게 올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동네 카페 소문 빠른 거 아시죠? 어찌 됐든 지금 저희 집 냄새 해결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

러니까 저는 출장비 다 못 드려요'라고."

"아이고 무서버라. 경찰은 뭐 한데 그런 사람 안 잡아가고?"

"으휴~ 됐어. 그래도 3분의 1은 주더라고."

이런 게 자영업자의 서러움일까요? 주방 환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배기 구조 때문에 한 집 수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도 꽤 있대요. 그래서 남편은 사전에 의뢰자 분하고 꼭 약속하고 가요. 아파트 구조상 해결할 수 없더라도 냄새의 원인을 밝혀내면 출장비는 다 주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약속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도 막상 돈을 줄 때는 출장비를 깎거나 안 주시려는 분이 꽤 많다고 하네요.

그것도 뭔가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계속 트집 잡으면서 협박에 으름장에.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덤덤한 척 듣고 있지만 속이 아주 미어집니다.

우리 둘째 기저귀만 떼면 제가 얼른 복직해서 남편 힘든 거 다 덜어주고 싶어요. 이 삼복더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비타민 음료가 채워져 있습니다. 가스 점검, 정수기 필터 교체, 하자 보수 등으로 언제든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요.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다닐 제 남편이 보여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당이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집에 방문해 주시는 기사님들에게 못되게 굴지 말아주세요. 작은 미소, 작은 배려, 최소한의 존중을 지켜주세요.

여자는 모른다

미남 미남 미남

애청자

우리 집 남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욕실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오~ 좋았어~ 잘 생겼어~”

욕실 문이 닫혀 있지만 안 봐도 훤헸해요. 남편은 노래를 부르며 수증기로 뿌옇게 된 거울을 손으로 쓱쓱 닦아낸 다음 촉촉하게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CF 광고 속 이덕화 씨에 빙의해서 ‘오~ 멋진 남자~’ 이러면서 거울을 턱 치고 있겠죠. 그리곤 뒤돌아 욕실을 나오면서 목에 수건을 두른 채 미소를 짓고 있을 때의 표정은 정말이지 저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깝습니다.

내 남편의 샤워 루틴. 제 남편은 자신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한 남자예요.

한창 헬스에 빠졌을 때는 덤벨로 팔 운동을 한 다음 “여보 여보~ 이거 봐. 내 근육~ 이거 펌핑 된 거 보여?” 앙상한 허벅지가 다 보이는 반바지에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이두근에 힘을 주고 팔을 부르르 떨고 있던 내 남자. 보기엔 별 차이 없었지만 그 모습이 안쓰러워 그냥 그렇다고 해줬어요. 아니, 그랬더니 글쎄 이 남자가 선을 넘지 뭐예요.

하루는 제가 애정하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얼굴에 휴지를 붙이고 막 평평 울고 있는데 이 남자가 옆에 와서 쓱 앉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쌩꺼풀만 있었으면 박보검이랑 똑 닮았겠지?”

순간, 내가 아는 박보검이랑 남편이 아는 박보검이 다른 건가 싶어서 “박복엄? 당신 지금 박복엄이라고 한 거야?”라고 되묻자 남편은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티브비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 아니~ 저기 나오는 박보검 말이야.”

뭐라고 반응할 수가 없을 만큼 황당했습니다. 우리 집 남자는 박보검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 돌검을 사용한 호모 사피엔스 닮았거든요. 오죽하면 남편과 연애할 때 제 동생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땐 저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 동생의 말뜻도 모르고 “응~ 응~ 너무너무~ 우리 결혼할 거야” 이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뭐 충분히 다 이해하죠. 아무튼 그날은 정신 차리고 남편에게 똑바로 말해줬어요.

“응~ 당신이랑 박보검이랑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개수는 똑같아. 개수만! 똑같아.”

그러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여자들은 확실히 남자 볼 줄 모르는구나. 남자들 사이에선 나 같은 얼굴이 박보검보다 낫다 그래.” 의기양양한 남편의 표정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 남자 남들 앞에서도 이러면 어쩌지. 회사 가서도 저라면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불안했는데 다행히 남편의 회사 분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경력직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분은 정말 배우처럼 진짜 박보검처럼 잘생긴 분인가 봐요. 직원들 모두 그분의 외모를 인정했고 남편 역시 환영 회식에서 웬일로 그분을 칭찬했답니다.

“일중 씨, 우리 팀에서 잘생김 1등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팀장님, 그럼 우리 팀 외모 순위 2등은 누굽니까?” 이런 도발적 질문을 날렸고 팀원들은 들썩이기 시작했답니다.

“흐흐흐. 뭘 그런 걸 물어. 당연히 나 아니야?”

“에? 뭐래. 전 대리는 내 아래지.”

“에? 양 대리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시력이 많이 안 좋네. 아니면 거울을 안 보나?”

“아, 그러지 말고 일순 씨한테 물어보자. 일순 씨, 우리 팀 남자 외모 2등이 누구야?”

“아휴~ 뭘 그런 걸 따져요.”

“따져야 돼! 지금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우리 팀 외모 2등 누구야?”

“아, 굳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일중님이 압도적 1등은 맞고 2등

은 음 글쎄요. 양 대리님이랑 전 대리님이랑 진짜 박빙이긴 한데.”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내가 2위인데 왜 자기 들끼리 싸우지?’ 싶어서 의아해하며 물었대요.

“저기 일순 씨 근데 나는 왜 빼?”

그러자 정직하고 거짓말 못 하는 남편의 착한 부하 직원분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답했다고 하네요.

“아휴 참~ 팀장님은 순위권 밖이죠.”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온 남편을 제가 온 힘을 다해 위로했지만 더 이상 남편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큰소리치지 않아요.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라도 현실을 깨달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사이 욕실에서 또 노랫소리가 들려오네요.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오~ 좋았어~ 잘 생겼어~”

오, 제발 여러분! 정말 남자들은 자신의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샤워하면서 자신이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남편뿐인가요?

사랑 사랑 사랑

재미없는 나의 재미있는 인연

애청자

5년 전 나는 입시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다. 아이들은 매일 갖가지 핑계를 대며 숙제를 빼먹고 가끔 내 속을 박박 긁는 질문을 해댔지만 그래도 나름 일은 보람차고 재밌었다.

“선생님, 수업 끝나셨으면 애들 보내고 잠깐 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특히 항상 나를 나이스하게 대해 주시던 원장님 덕분에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면담이라니 나 뭐 잘못했나? 애들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선생님은 지각하는 법도 없고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수업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해보자면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편하게 해보는 건 어때요? 선생님 수업이 좀 진지하고 딱딱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쿵 내 마음속의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재미없다! 노잼이다!’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원장님이 모르시는 게 분명했다.

나의 ‘노잼 콤플렉스’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2년 동안 거의 자석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까지 포함해서 총 세 명이었던 무리에 한 명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묘하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것 같았다.

“애, 우리 이제 급식 따로 먹자. 사실 너랑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 넌 너무 진지하고 뭐랄까 꼭 엄마랑 노는 것 같아.”

“갑자기?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너 좋은 사람인 거 우리 다 알지. 근데 그냥 좀 불편해서 그래.”

그 사건으로 내 마음에 남은 상처는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나를 더 끈질기게 괴롭혔다.

대학생 때는 또 어떤가. 새내기 시절 만난 첫 남자친구는 내가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좋다 했는데….

“그니까 내가 오늘 농구장에서 3점 슛을 넣고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명대사를 빼 날렸다니깐.”

“근데 오빠 왼손잡이 아니야? 그럼 ‘오른손은 거들 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

“아니, 너 슬램덩크 안 봤어? 거기 나오는 명대사잖아. ‘왼손은 거들 뿐’”

“아, 난 오빠가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지.”

“하~ 됐다. 그냥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남자친구는 날이 갈수록 대화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너랑 하는 연애가 재밌지 않다’는 문자를 끝으로 홀랑 잠수를 타 버렸다.

그렇게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나를 위축되게 만들던 ‘노잼 이미지’. 그 꼬리표를 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국 일터까지 따라오다니. 나는 속상한 마음에 원장님 앞에서 그 어떤 표정 관리도 하지 못했고 동시에 이런 말까지 하고 말았다.

“원장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 건 제가 아예 다른 사람이 돼야 하는 일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새로운 강사님을 구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강요 할 순 없고. 일단 알겠어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내심 후련한 기분이 들면서도 찢찝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며칠 후 그 찢찝함은 속상함으로 바뀌어버렸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게 된 거다.

‘당당 입시학원. 초/중등부 국어 선생님 새로 구함. 최대한 빨리 근무하실 수 있는 분 우대’

학원 일을 그만두면서 나는 깊은 무기력과 자기혐오에 빠져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런 딸이 걱정된 엄마는 일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되니까 제발 예쁘게 하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좀 하라고 나를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 하루는 정말 예쁜 원피스를 입고 시내

의 카페에 다녀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내 등을 툭툭 두드리는 게 아닌가.

“저기요~”

“네? 저요?”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여자분 맞으시죠? 제가 차를 끌고 왔는데 이 동네를 잘 몰라서 주차하는데 한 세월이 걸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개팅이요?”

“아까 카페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회색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 여기 한참 앉아 있다가 방금 나가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놓칠까 봐 엄청나게 뛰어왔어요. 걸음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

듣자 하니 이 남자는 내가 방금까지 있던 카페에서 소개팅 상대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는 모종의 이유로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이 남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마침 내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 나를 소개팅 상대로 착각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요. 저는 사실.”

“아까 막 화나셨는지 파워워킹하시던데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인생 첫 소개팅이라 레스토랑도 예약해 놓고 준비 많이 했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남자의 간절한 표정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일탈 한 번 해봐? 이렇게 된 거 그냥 데이트하고 헤어지기 전에 사실 나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없지 않나. 어차피 뭐 하루 잠깐 노는 건데.’

“그럼 같이 가시는 거죠?”

남자의 차에 타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그는 기분이 좋은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계속 만나보라고 하기에 왜 저렇게까지 유난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길 잘한 거 같아요.”

“하하~ 그래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카페 도착해서 계단 올라갈 때 내려오는 모습 봤거든요. 그때 스쳐 지나가면서 저 여자분 진짜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돌직구에 아낌없이 표현하는 남자라니, 나는 퍽 당황했지만 그래도 좀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도 내 재미없는 성격에 금방 흥미를 잃겠지 생각했다.

“우와~ 국어 강사셨다고요? 멋있다. 저는 어릴 때 수학을 좋아해서 국어랑은 영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데카르트 아시겠네요?”

“알죠. 갑자기 그건 왜요?”

“데카르트가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철학자로서 데카르트를 좋아하는데. 아!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하하~ 진짜 재밌는 사람이네. 평소에 엉뚱하고 재미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내가 재밌다고? 심지어 엉뚱하다고? 난생처음 들어보는 반응에 나는 내심 기분이 좋아져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럭처럼 마구잡이로 달리기 시작했다.

“또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 없어요?”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요. 하마는 땀샘이 없어서 땀을 안 흘린



대요. 대신 피부에서 분홍색 기름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자외선
도 차단해 주고 세균도 막아준다고. 선크림 안 발라도 되니까 너
무 부럽죠?"

“저는 하마보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알고 계신 택이 더 부러운데요. 우리 이러지 말고 2차 가서 얘기 좀 더 나누면 안 돼요?”

단순히 예의상 내 장단을 맞춰준 건 아닐까 아니면 반짝하고 사라질 단순한 호기심은 아닐까 하던 내 의심은 그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내가 사실 소개팅 상대가 아니었고 우연히 만난 한 여자 일 뿐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도 아무렴 어떠냐며 잘 맞으면 상관 없는 거 아니냐고 재미있고 쿨하게 나의 걱정을 없애주었다.

“당신한테 재미없다고 했다던 그 사람들 그냥 운명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볼래요?”

그렇게 그날의 우연과 큰맘 먹고 한 일탈 덕분에 나는 평생의 반쪽을 만나게 되었다. 모든 게 재미없고 무기력해서 인생이 바닥을 쳤던 때 정말 선물처럼 가장 재미있는 일이 생겨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다니 역시 인생은 알 수 없다.

그와 결혼하면서 여러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이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운명이라는 확신이 들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지해 주고 작년 여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

돌아보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내가 ‘재미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여도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었을까. 재미없는 나, 재미있는 인연을 만나 이제 웃으며 삽니다.

사랑 사랑 사랑

떡볶이가 만들어준 인연

애청자

제게는 세 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성격도 특이하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우리 오빠. 그래서 그런지 버릇처럼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친구? 에이~ 할 말도 없구먼 자주 만나서 뭐 해. 결혼? 에헤이~ 난 혼자 지내는 게 좋다니까.”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보며 “우리 김씨 집안의 대는 여기서 끊기나보다. 쟤를 어쩌면 좋냐”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런데 그런 오빠에게도 정말 기적 같은 인연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은 대학생 때부터 저랑 쭉 붙어 다니던 제 단짝친구 미정이 가 처음으로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너희 집에서 떡볶이 해 먹으면 안 돼? 부모님도 계시는데

좀 그런가?”

“부모님은 출근하셔서 집에 안 계시긴 한데 아마 오빠가 있을 거야. 괜찮아?”

“아참, 너 오빠 있다고 했지? 나야 괜찮지.”

“사실 우리 오빠가 성격이 쪼끔 특이하거든. 네가 불편할까 봐 그런 건데 괜찮으면 뭐 그래 가자.”

아, 근데 뭐랄까요. 이 묘하게 찝찝한 뭔가 불길한 알 수 없는 감정을 뒤로하고 저는 미정이와 가까운 마트에 들러 간단히 장을 본 후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나 왔어. 미정이도 왔어.”

“안녕하세요.”

그러자 저 안쪽에서 우당탕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오빠가 거실로 슬쩍 나와서는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휴 좀 밝게 인사해 주지. 저 성격 어디 가겠나 싶더라고요.

“네 오빠가 수줍음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불편해할까 봐 걱정한 거지?”

“어어~ 오빠가 말수도 없고 낯가림도 심하거든. 그래서 그래.”

“야, 그 정도는 남자들 다 그렇지 뭐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미정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장바구니에서 재료들을 척척 꺼내면서 요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우리만 먹긴 좀 그러니까 오빠도 나와서 드셔보시라고 해.”

“오빠도?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먹자.”

“얘가 왜 이래?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얼른 오빠 불러와. 빨리!”

하~ 진짜 겸상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안 하고 싶었는데 미정이의 의지가 너무 굳건해서 어쩔 수 없이 오빠를 불러야 했어요.

“오빠, 나와 봐. 미정이가 떡볶이 했는데 오빠도 같이 먹재.”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벌컥 하고 방문이 열리더니 “그래 그럴까” 하며 오빠가 웬 결혼식장에서나 입을 것 같은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한껏 매만지면서 나오는 겁니다.

“뭐해? 오늘 어디가?”

“아니 그냥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정장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입어본 거야.”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싶었지만 일단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저, 미정이, 오빠 셋이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 불편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때요? 고추장을 좀 넣긴 했는데 매운 거 못 드시는 건 아니죠?”

“오빠, 미정이가 묻잖아. 매워? 안 맵지?”

“하나도 안 매워요. 입에 딱 맞아요.”

서로 ‘하하하’ 스타카도 웃음을 지으면서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던 찰나.

“어머며!”

미정이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치면서 떡볶이 떡 하나가 식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오빠의 눈치를 살폈죠. 아니나 다를까 살짝 구겨진 오빠의 표정.

“어머 죄송해요. 미안. 이걸로 밖으면 되지?”

당황한 미정이가 서둘러 근처에 있는 행주를 집어 바닥을 밖으려던 그때.

“안 돼.”

오빠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바닥 닦는 용도가 아니라고! 지저분하게 진짜!”

“오빠 왜 그래. 바닥 닦는 거나 식탁 닦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뭘.”

“엄연히 다르단 말이야. 바닥 닦는 걸레는 우리의 더러운 밭 거기에 묻은 때, 흙 그런 것들이 묻어 있다고. 식탁은 우리가 밥 먹는 곳인데 그걸 섞어서 쓰면 되겠어?”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가 좀 특이하다고요. 사실 약간 심할 정도로 깔끔을 떠는 성격이긴 한데 미정이는 처음 보는 사이니까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 주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빠의 ‘결벽 레이더’가 발동되고 만 것이었죠.

그렇게 오빠는 별떡 일어나 정숙한 정장 차림으로 ‘식탁용 행주’와 ‘바닥용 행주’의 차이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했고 그리고 나서도 분이 가시질 않았는지 급기야 미정이 손에 들려있던 행주를 가로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예상했죠. 미정이는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오겠구나.

“나, 집에 가야 될 거 같아. 미안해.”

정말 미정이는 우리 오빠에게 단단히 질려버린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완전 정을 떼버린 건지 제게 귓속말로 ‘굿바이’ 인사를 전하고는 부리나케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은 듯한 미정이에게는 ‘우리 오빠가 원래 좀 그렇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미안하다’ 충분히 인사를 전했고, 우리 오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서로 투명 인간 취급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오빠가 웬일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그때 집에 놀러 온 친구 있잖아. 미정이라고 했나?”

저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보다 미정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나’ 싶었어요.

“걔는 집에 또 놀러 안 오냐?”

“왜 사과라도 하게? 됐어.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짹싹 벌었거든. 그리고 오빠라면 또 놀러 오겠냐? 그렇게 면박을 당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심했나? 나도 당황해서 그랬지. 아무튼 너랑 친하다 이거지? 그럼 미정이에 대해 잘 알겠네.”

근데 가만 보니까 오빠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얼굴도 약간 뺨개져 있고 미정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실 웃는 게 설마 미정이한테 관심 있나 싶더라고요.

“너 혹시 미정이 좋아해? 웬~ 야, 절대 안 돼! 꿈 깨!”

“왜 걔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잖아.”

“미쳤어?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

아무튼 절대 안 된다고 내 친구는 건들지 말라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날 저녁 부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네 오빠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듣자 하니 너 친구라던데 첫눈에 반한 모양이더라고, 첫 단추를 좀 잘못 꿰매긴 했지만 네가 중간에서 어떻게 잘 좀 해봐 줄 수 없겠냐고요.

아오~ 이 웬수 웬수! 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는데 제가 뭐 어쩌겠어요. 일단 다리 한 번 놔봐야죠. 다 가오는 주말에 저는 미정이를 불러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미정아, 너 이상형이 남자답게 생기고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이
라고 했지?”

“응, 그랬지. 왜? 나 소개팅 시켜 주게?”

“내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게. 소개팅 딱 한 번
만 나가주라. 너도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설마 내 전남친은 아니지?”

“그건 아니고. 우리 오빠. 지난번에 봤던 우리 친오빠.”

“뭐?”

저는 미정이한테 정말 싹싹 빌었어요. 향후 10년간 내 생일 선물 안 해줘도 되니까 나가서 오빠한테 복수해도 되니까 딱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약속 장소에 나가달라고요.

“아니, 오빠는 내가 좋대? 나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낸 거야? 진짜 웃겨. 정말.”

미정이도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더니 제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대신 이번 한 번만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성사된 우리 오빠와 제 단짝친구의 소개팅. 저는 오빠가 또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미정이가 오빠 뺨을 때리는 건 아니겠지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집 전화기를 불들고 기다렸습니다. 미정이가 제발 평범한 후기를 들고 와 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여보세요?”

“응, 나 미정인데.”

“어땠어. 둘이 싸운 건 아니지?”

미정이에게 들은 소개팅 후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오빠, 완전 사람이 달라졌다니깐.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제일 젠틀해. 아니 길을 걷는데 햇빛에 얼굴 탄다고 어디서 우산을 사 오는 거 있지. 게다가 엄청 똑똑하시더라고. 내가 질문하면 척척박사처럼 대답하는데 깜짝 놀랐잖아.”

“우리 오빠가 젠틀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래! 난 진짜 좋았어. 다음 주 주말에는 영화 보기로 했는데 일단 오늘은 합격! 다음 주에도 어땠는지 말해줄게. 끊는다.”

친구의 말을 듣고 어찌나 얼떨떨하던지. 이건 뭐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것도 아니고.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감이 안 오더라 고요.

그런데 미정이는 오빠가 마음에 든다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정 말 다음 주에도 다다음주에도 주말마다 데이트를 이어갔고 끝내 “나, 오빠랑 사귀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경사 났죠. 사람 만나는 거 귀찮다던 아들내미 가 그것도 김씨 집안 장남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와 성공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니 말이에요.

그날 이후 둘은 순탄하게 만나는 것 같다가도 하루는 오빠의 결벽증 때문에 또 하루는 오빠의 무심한 성격 때문에 덜컹덜컹 자주 싸우면서 부딪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빠를 앉혀놓고 ‘슬픈 영화 보면서 주인공의 심정에 공감해 보기’ 숙제를 내주었죠. 엄마는 수시로 미정이를 집에 초대해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너 고생하는 거 안다. 힘들 때는 동생에게 다 일러라’ 하고 예비 며느리 마음 얻기에 열중이었죠.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다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는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가끔 본가에 놀러 올 때면 대충 양말을 벗어 던지곤 “에이 그냥 둬요. 냄새 별로 안 나니까 내일 한 번 더 신을게요” 하는 거 있죠. 식탁 아래로 떨어진 음식도 대충 자기가 신고 있던 양말로 닦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미정이와 통화할 때면 제가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는 우리 오빠. 지금도 저는 둘을 보면서 그때 미정이가 ‘떡볶이 떡’ 훌렸던 게 참 잘된 일이고 둘이 천생연분이라 생각한답니다.



날아가는 시간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즈음 웬만하면 모임에 자주 간다. 날이 갈수록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노래하거나 헤어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TV 방송일이 줄어드니, 집에서 삼시 세끼 챙기고 저녁 시간이면 TV를 벗 삼아 마냥 늘어진다. 어휘력도 줄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노인성 퇴행을 겪고 있다. 여성시대 월 1회 쓰는 원고만 해도 아무런 만남이 없으면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글도 써지질 않는다.

가만 보면 하루 한 가지 이상 일을 못 한다. 여성시대 생방송 후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장보고 주민센터 들러 서류 떼고, 병원 까지 가면 집에서 저녁 할 기운 없이 뻔을 생각만 한다. 얼마 전처럼 순서 정해서 후다닥 몇 가지 일을 본다는 게 이젠 무모한 로망 일 뿐이다. 고교 시절 특별활동인 걸스카우트의 모토는 1일1선(하루 한 가지 착한 일 하기)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하루 한 가지 일보 기조차 버겁다. 두 가지 일을 해결한다는 게 무리다.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가? ‘월요일인가?’ 하면 목요일

이고 금세 주말이다. 내리는 커피기계 필터가 100장씩 들어있었는데 90장으로 줄인 지도 꽤 되었다. 석 달에 한 번 새것으로 바꾸는데 그 석 달도 그냥 쑨살같이 날아간다.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어라. 인생일장은 춘몽이요 세상 공명은 꿈밖이로구나.’ 이런 노랫말들을 절감한다.

여름방학이 되니 멀리서 오는 지인들도 많은데, 스페인 말라가에서 지인이 딸을 데리고 왔다. 은퇴한 부모님은 강원도 주문진에 사셔서 서울에 오려면 서울에서 볼 일을 여러 개 만들어 일정을 잡는단다. 좋아하는 한식을 물으니 두부란다. 떠난 지 오랜 분들은 더더욱 우리나라 식단을 그리워해서 깔끔한 한식집을 예약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딸아이는 올OO영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장품을 잘 아는지, 엄마가 배운단다. 그 동네 물난리를 물으니 발레시아에 대홍수가 있었지만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하루 정도만 집에 갇혀있었던단다. 두어 시간의 점심 후 롯데 미도파 신세계 백화점을 거쳐 강남까지 가는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아요? 어머머~ 나 사는 데는 높은 건물이 없는데, 되게 좋네요. 빌딩 구경 신나요. 전 촌사람이니까.” 숙소에 내려주고 집에 오니 그녀의 톡이 와있었다. “간결하고 담백한 점심식사 한 상을 서울 중심에서 사주시고 교통체증을 뚫고 다시 서쪽까지 데려다주시고 황송한 대접 감사합니다. 말라가에 꼭 와주세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반가운 이와 만나면서 이렇게 또 한 계절이 간다.



가족여행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두 아들이 미취학아동일 때나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네 식구는 주말이나 아이들 방학에 부지런히도 여행을 다녔다. 아내도 나도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집에만 있는 게 더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차라리 밖으로 나가자!’ 해서 산과 들로 떠났었다. 그런데 두 녀석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주말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졌다. 학원을 가야 하고 친구를 만나야 하고, 때때로 아무 일이 없더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나가길 꺼려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별써 자립심들이 생긴 건가 싶었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연스레 가족여행 이야기가 나왔고 두 녀석도 어디로 갈 거냐며 은근히 관심을 보였다. ‘어차피 아빠의 일정상 길게 떠나지 못한다, 가까운 곳으로 가보자’ 여기까진 오케이. 아빤 바다에 가서 물놀이와 휴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식구에게 대차게 까였다. 수영복을 입기 싫다는 두 아들. 관광

을 하고 싶다는 아내. 어쩔 수 없었다. 내 편이 없다. 해서 정해진 목적지는 일본의 삿포로다. 워낙에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라 겨울철 눈 덮인 경치로도 유명하니, 지금 가도 여기 서울보다 시원하게 싶었다. 그리고 아빠인 난 내심 시원한 호텔 바에서 한가로이 현지에서 마시는 삿포로 맥주를 떠올리며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떠난 여행. 바로 옆 나라 일본이지만 비행기로 거의 세 시간이 걸려 도착했다.

첫날은 도착하니 이미 밤이었고, 둘째 날부터 여행이 시작되었다. 아~ 여행은 걷는 것이라는 철학이 확실한 아내. 오전 여덟 시부터 호텔을 나섰다. 무슨 등교나 출근 시간도 아니고 휴가를 와서 오전 여덟시 출발이라니.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아내가 꼼꼼히 짜온 동선에 맞춰 우린 그야말로 시내 관광에 나섰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곳을 둘러보고 쉼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이건 마치 게임

속 미션 해결을 위한 이동 같았다. 더욱이 샷포로는 한낮에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으로 돌아다니기에 결코 시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린 2만 보 이상을 걸었고 호텔에 다시 돌아 오니 밤 열 시였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호텔에 들어오기 전 들른 편의점에서 사 온 캔맥주와 스낵. 다음날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아니지 어제 이미 경험했으니 자포자기한 내 마음 하나 달라졌다.

그렇게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새삼 아내의 계획적인 성향에 놀랐고, 그 일정에 군소리 없이 함께하는 두 아들이 대견했고, 부쩍 성장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 글에도 담겨있지만 유일하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던 나의 저질 체력에 실망했다.

그래도 여행은 즐거웠다. 멋지고 예쁜 곳에서 읊 식구들 사진도 많이 찍고 대화도 많이 나눴다. 다만 다음번 가족여행은 휴양지를 간절히 희망할 뿐. 아니면 나 안 갈 거야!



IBK기업은행

기 업 의 [사 명]

M I S S I O N

使 命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산업용 볼트 제조 기업 S사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LED 실균 조명 개발 R사

“자율형 로봇 기술로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 자율화 로봇 개발 P사



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그 옆에



IBK 기업은행

IBK가
바꾼 삶.

64
IBK 영업 44주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I Believe Korea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국민연금 받거나
IBK로 국민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7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든든하게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 앱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국민연금 임금계좌 변경 서비스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임금계좌 변경 이벤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876호(2025.06.13) 유효기간 2026.06.12]

· 이벤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